

TOGETHER: The Cheong Wa Dae
Art Collection
Open to the People

청와대 소장품 특별전

2018.5.9.~7.29.

청와대 사랑채
Cheongwadae Sarangchae

함께, 보다.



행복한 교육 2018년 7월

특별기획_교육자치의 새바람

교육부

행복한 교육



Vol. 432. 2018. 7.

특별기획_교육자치의 새바람
교육 썰전_학생 수 감소와 학교의 대응

CONTENTS

July 2018 Vol. 432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duzine21@gmail.com)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02 특별기획

교육자치의 새바람

04 2018 시도교육감에게 듣다

13 학교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

14 교육자치, 새 출발과 성공의 길

17 세계의 교육 변화

학교 단위에서의 스웨덴 교육자치



현장이야기

- 20 **지금! 혁신교육** 부산다행복학교_ 부산진초등학교
전교생이 책 속에 풍덩 빠지는 특별한 책뜨락
- 24 **삶과 교육** 정애경 서울국제고등학교 교사
- 28 **이런 수업 어때요** 충북 진천 덕산중학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 32 **아하! 진로체험** 경남 행복마을학교
- 36 **클로즈업** 더 빨리 더 멀리!
- 38 **나눔 실천하는 사람들** 소담초 아버지 자전거 방법대
- 40 **명예기자 리포트** 마을 곳곳마다 진로 길라잡이가 된다 외

정책이야기

- 46 **정책N전망**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와 시민참여단
- 48 **김상곤의 행복한 교육편지** 4차 산업혁명과
오래된 교육의 미래
- 50 **정책카툰** 혁신학교
- 52 **초점, 4차 산업혁명** 혁신의 시대 메이커 운동과 메이커 교육
- 55 **이슈**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본격 논의
- 58 **꽃 피는 교육자치** 경남/충남/세종/전남/강원/광주



정보이야기

- 62 **교육 썰전** 학생 수 감소와 학교의 대응
- 62 줄어드는 학생 수 통폐합이 대안일까?
- 64 교육은 복지가 아니라 권리이다
- 66 **학급운영노트** 여름방학 알차게 보내기
- 68 **아이의 다락방** 말 속에 자살을 암시하는 영준이
- 70 **이야기 인문학** 허무주의 시대, 니체를 다시 보다
- 72 **일상의 심포** 덧없 소리가 손짓하는 길목, 담양
- 76 **뉴스브리핑**
- 79 **행복 게시판**

표지이야기

충북 덕산중학교(교장 김진균) 운동장에서 한여름의 무더위를 식혀줄 시원한 물총놀이가 벌어졌다. 지역 특산물인 '덕산수박'으로 화채를 만들어 전교생이 나눠먹고 수박껍질로는 물총놀이에서 '수박왕'을 가릴 멋진 '수박 헬멧'을 만들었다. 같은 팀의 '수박왕'을 지키면서 상대 팀의 '수박왕'을 무찌르기 위한 물총부대 투입, 시원한 물세례가 무더위를 식혀주자 승부를 떠나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만발했다.

특별 기획

교육자치의 새바람

1. 2018 시도교육감에게 듣다
2. 학교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
3. 교육자치, 새 출발과 성공의 길

2018 EDUCATION



경기도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신라남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8 시도교육감에게 듣다 “교육이 희망이 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7개 시도교육감들의 민선3기 임기가 7월 1일부터 본격 시작됐다.

특히 유·초·중등교육의 지방 분권을 강화하고 학교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의 지방자치 실현과 학교자치 지원을 예고하고 있어 새로운 교육자치 시대를 맞는 교육가족의 기대가 크다. 이에 17개 시도교육감들의 그동안 걸어온 발자취와 함께 주요 공약을 소개한다. 또한 민선3기를 맞아 향후 4년간의 미래교육 청사진을 함께 제시한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교육감 이력 (전) 서울특별시교육감 (전) 성공회대 시민사회복지대학원장 / 통합대학원장
(전) 미국 남가주대학교(USC), 대만 국립교통대학교 (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일본 게이센여자학원대학에서 한국학 강의 (전) 참여연대 창립 사무처장·집행위원장

4년간의 청사진

“한 걸음 더! 서울교육”
“지난 4년의 노력, 더! 나은 4년으로 완성하겠습니다.”

한 아이도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는 교육, 공정한 평등은 교육의 출발선입니다.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각 학교 급별 첫학년의 기초학력을 강화하며 고등학생들의 대학입학 준비와 진로탐색까지, 그리고 특수 교육의 내실화로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책임교육감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과 적극적인 성평등 교육으로 안전한 학교를 실현하고, 미세먼지 없는 청결한 학교, 고등학교와 사립초까지 친환경무상 급식을 확대하며, 더 안전하고 더 즐거운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안전교육감이 되겠습니다.

혁신학교 2.0의 4년 성과에 기초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와 학교비정규직 모두가 주체가 되는 민주적 학교를 만들고, 비리사학을 엄단하여 교육 공공성을 높이며,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혁신교육 3.0 시대를 여는 혁신교육감이 되겠습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와 지자체 협력의 4년 성과에 기초해 서울시, 자치구,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학교 교육력을 높이고 마을교육을 살려 서울시민 모두와 함께 어린이·청소년의 행복한 미래교육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앞장서는 시민교육감이 되겠습니다.

주요 공약

- ✔ 하나, 교육의 공공성을 지켜 따뜻하고 정의로운 서울교육을 만들겠습니다.
- ✔ 둘, 폭력과 환경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 ‘혁신교육 3기’로 공공교육의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 ✔ 시민과 함께 ‘교육도시 서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

교육감 이력 (전) 부산광역시교육감 (전) 부산생활협동조합 이사
(전) 부산교육포럼 공동대표 (전) 부산대 사회교육학부 교수
(전) 부산교육희망 네트워크 공동대표

4년간의 청사진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주입식·암기식 위주의 낡은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력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부산시민께 약속드린 ‘미래를 준비하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교육격차 없는 부산’, ‘공부도 잘하는 부산’을 위해 다양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주요 공약

- ✔ 하나, 학생들이 선도적으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권역별로 ‘미래교육센터’를 설립하고, 모든 학교에 창의학습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 ✔ 둘,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의 시름을 덜어 드리기 위해 임기 내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배까지 확대하고, 유치원 수요가 많아지는 명지와 정관 신도시에 유아전용 수영장을 갖춘 ‘공립 허브유치원’을 시범 설립해서 인근 공·사립 유치원이 함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 셋, 부산다행복교육지구를 확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협력을 강화하고, 사하구, 사상구 등 다문화학생 밀집지역 내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여 ‘지역형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 ✔ 넷, 학생참여중심 수업 확산을 위해 ‘수업코칭센터’를 운영하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언제 어디서나 대입상담이 가능한 온·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교육감 이력 (전) 여성가족부 장관 (전) IT여성기업인협회 회장
(전) 제19대 국회의원 (전) 봉화 소천중·칠곡 동명중 교사, 원화여고 강사
(전)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

4년간의 청사진

세상의 변화를 읽어내고, 필요할 때 원하는 지식을 찾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며, 나와 다른 이의 행복을 함께 가꾸어 갈 수 있는 따뜻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서로를 존중하며, 마음껏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교실 중심 ‘학교자율 책임경영’을 보장하겠습니다.

학생이 지능정보 미래 사회에 스스로 행복한 삶을 가꾸어 갈 수 있도록 미래 핵심역량을 기르는 교육에 주력하겠습니다.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사람과 세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바탕으로 가치 있는 질문을 던지고 선생님, 친구들과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배움의 즐거움을 체험하는 교육이 완전히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공약

- ✔ 하나, 미래사회 창의융합 인재 양성
 - 학생적성 기반 교육시스템 구축으로 진로 적성에 맞는 맞춤형 학습코칭
 - 창의·융합 교육과정 및 ‘소프트웨어·메이커 교육’ 강화
- ✔ 둘, 교실 중심 학교자율 책임경영 보장
 - 교원업무경감을 위한 ‘학교 정책 선택제’ 시행
 - 교육청 주관 학교평가 폐지를 포함한 학교평가 획기적 개선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교육감 이력 (현) 인천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 교육자치위원장 (현)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지도위원
 (현) 재단법인 참교육장학회 상임이사 (전) 전교조인천지부 11대·12대 지부장
 (현) (사)사람과 문화 이사 (전) 인천동암중학교(혁신학교) 교장

4년간의 청사진

시민이 교육감이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이 시작됩니다.

인천교육 미래를 위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학생, 학부모, 교원, 시민이 함께 희망과 정의가 살아있는 인천교육을 만들어갑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위해 △꿈이 있는 교실 △소통하는 학교 △공정한 인천교육을 중점 추진합니다. 특히, 교육 현안을 시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시민참여를 도입하는 등 일하는 방식과 소통방식을 혁신합니다.

주요 공약

- ✔ 하나, 학생의 꿈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펼치고, 세계시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 둘, 학교, 마을과 협력하는 우리 인천교육의 소통시대를 열겠습니다.
- ✔ 셋, 안전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교육, 꼭 만들겠습니다.
- ✔ 넷, 누구에게나 기회는 균등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인천교육, 완성하겠습니다.
- ✔ 다섯, 현장 중심 교육행정으로 부정부패 성폭력 없는 청정교육,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

교육감 이력 (전) 광주광역시교육감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지부장
 (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전) 광주교대 졸업, 초·중·고 교사
 (전) 광주교육위원회 교육위원(8년 활동)

4년간의 청사진

지난 8년 동안 이어져 온 혁신교육의 틀은 유지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평화시대, 통일시대에 걸맞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직선 3기는 교육자치와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통해 우리 아이들을 '미래인재'로 키우려고 합니다.

'학교자치조례'를 제정해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를 법제화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완성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수업료, 교과서대금,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광주가 고교 무상교육을 선도해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체험을 통해 창의력, 문제 해결력, 융합적 사고력, 협동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진로체험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맞춰 남북한 학생들의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교류, 수학여행, 공동 수업, 남북 학생 평화축제 등 다양한 교육교류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정규교육과정과 연계해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체험을 진행할 수 있는 '광주학생문화예술체험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또, '기적의 놀이 도서관'을 개관해 독서와 놀이가 하나 되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주요 공약

- ✔ 하나, '학교자치조례'를 제정해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를 법제화하겠습니다.
- ✔ 둘,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완성하겠습니다.
- ✔ 셋, '4차 산업혁명 진로체험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 ✔ 넷, 다양한 문화예술체험을 진행할 수 있는 '광주학생문화예술체험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

교육감 이력 (전) 대전광역시교육감 (전) 한밭대학교 제4대, 5대 총장
 (전) 대전·충남지역총장협의회 수석회장 (전) 전국대학교 교수회 공동회장
 (전)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자문위원

4년간의 청사진

대전교육을 향한 열망을 받들어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교육비전으로 정하고, '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갖춘 세계시민 육상'을 대전교육이 나아가야 할 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교육은 인재를 만들고, 인재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대전시민, 교육가족과 함께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활짝 열어하겠습니다. 대전교육이 한국교육을 선도하고, 대전의 학생들이 세계화 시대에 언제 어디에서든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공약

- ✔ 하나,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혁신을 이루겠습니다.
- ✔ 둘,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 ✔ 셋,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 ✔ 넷, 교육기회가 균등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 ✔ 다섯,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육경영을 이루겠습니다.



노옥희 울산광역시교육감

교육감 이력 (전) 친환경의무무상급식 풀뿌리울산연대 상임공동대표 (전)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수석본부부장
 (전) 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 초대이사장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1, 2대 지부장
 (전) 삶을나누는공간 '더불어숲' 대표 (전) 교육민주화선언 참여로 현대공고에서 해직
 (전) 울산광역시 교육위원

4년간의 청사진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만들 것입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완성하는 것은 물론 수학여행비와 교복비를 지원하고 학습 준비물비를 전액 교육청이 지원하여 보편적 복지정책이 학교 현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학생 중심 교육, 배움 중심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각종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학습 환경을 우선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울산 시민들의 교육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비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며 이는 교육감부터 지켜나갈 것입니다.

주요 공약

- ✔ 하나, 성역 없는 부패비리 원스트라이트 아웃
- ✔ 둘,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 ✔ 셋, 학교 교육과정 외 강제학습 폐지
- ✔ 넷, 혁신학교 및 혁신교육지구 지정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교육감 이력 (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전) 대전통일교육협의회 회장 (전) 한국토지공사 참여정부 초대 상임감사
 (전) 노무현재단 대전충남지역위원회 공동대표 (전) 전교조 충남지부장, 수석부위원장

4년간의 청사진

혁신교육, 미래교육, 책임교육 실현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학교 혁신, 교육 혁신을 지속으로 추진, 새로운 교육체제를 수립하겠습니다. 새로운 학력, 미래 역량 교육으로 미래를 여는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공평한 돌봄과 배움의 권리,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겠습니다.

주요 공약

- ✔ 하나,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확대와 캠퍼스형 고교 설립
 -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고교, 서로 특성이 다른 인문중점고·자연중점고·예술중점고를 하나의 캠퍼스에 배치(진로에 따라 각 고교에서 개설한 강의를 선택해 수강)
- ✔ 둘, 유아교육 혁신
 - 탈락 걱정 없는 유치원 입학, 유치원 학급당 원아 축소, 숲교육과정 확대 및 숲유치원 설립, 생태유치원 지정 운영, 유아종합놀이센터 권역별 설치
- ✔ 셋, 미래 인재 육성
 - 고교학점제 선도, 일반고 학교별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 창의진로교육원·평생학습관·마이스터고 설립
- ✔ 넷, 교육복지 최고 세종 실현
 - 교육비·차별·건강·안전 걱정 없는 세종교육 실현, 공교육비 '제로' 추진(무상교복,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고교 무상교육)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교육감 이력 (전) 경기도교육감 (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위원
 (현) 노무현 재단 이사 (전) 교육부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공동의장
 (현) 유라시아평화철도포럼 이사 (전) 성공회대학교 총장
 (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전)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

4년간의 청사진

미래를 여는 경기교육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교육의 본질을 염두에 두고 지난 4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깊이 성찰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며 교육의 시대적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앞으로의 4년은 공정한 교육, 공평한 교육으로 '교육을 교육답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주요 공약

- ✔ 하나, 경기혁신교육 3.0으로 미래 교육을 준비하겠습니다.
- ✔ 둘, 학교자치와 학교민주주의로 교육자치를 완성하겠습니다.
- ✔ 셋,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 ✔ 넷, 통일교육과 민주·세계시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 다섯, 미래시대 진로·진학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 여섯,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교육감 이력 (전) 강원도교육감 (전) 친환경무상급식·무상교육강원운동본부 공동대표
 (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장
 (전) 4, 5대 강원도 교육위원 (전) 정선여중, 인제중, 인제고, 춘천여고 등 교사

4년간의 청사진

강원교육은 모두를 위한 교육을 지향합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은 '돈 안 드는 교육', '좋은 교육', '정의로운 교육'으로 교육선진국을 이루며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로운 행복을 추구합니다.

강원교육의 기본방향은 '기초가 강한 교육, 미래를 여는 교실'로 기초가 강한 교육을 위해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기본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다각적 지원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미래를 여는 교실을 위해 학생들이 더 좋은 미래를 열어가는 다양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 전반을 혁신하겠습니다.

주요 공약

- ✔ 하나, 기초학력부터 미래학력까지 책임지는 교실 혁신
 - 초등학력 안심교실, 영어·수학 책임교육
 - 캠퍼스형 연합학교 <강원행복고등학교> 운영
- ✔ 셋, 마을과 학교가 만나 민주시민을 키우는 교육
 - 문화예술·민주시민·생태평화교육 활성화
 - 학교와 학생을 지원하는 강원교육 생태계 구축
- ✔ 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돈 안 드는 교육 완성
 -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중고교 무상교육 확대
 -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

교육감 이력 (전) 충북교육발전소 상임대표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9대 지부장
 (전) 전국 교육복지 포럼 공동대표 (전) 중등교사(21년 4개월)
 (전) 충청북도교육위원회 5대 교육위원

4년간의 청사진

충북교육의 비전은 '함께 행복한 교육'입니다. 공공선(公共善)의 가치를 지향하고, 서로 배려하고 모두 존중하며 미래를 선도하는 세계적 민주시민으로 길러,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는 역동적인 교육공동체를 이루겠습니다.

신나는 학교는 배움이 즐거운 학생, 사랑과 열정이 가득한 선생님이 함께 하는 곳입니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정의롭고 겸손한 인품, 다원적 가치를 존중하는 따뜻한 품성을 지닌 사람으로 함께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공약

- ✔ 하나, 모두가 주인 되는 민주학교
 - 학교자치조례 제정, 공동운영·공동참여·공동책임을 통한 학교민주주의 구현,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강화
- ✔ 둘,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교육
 - 행복씨앗학교, 행복교육지구 내실화, 교실수업 혁신
- ✔ 셋,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예·체교육
 - 교육·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 교과 연계 독서교육 프로그램 강화, 충북 체육고등학교와 연계한 체육중학교 설립
- ✔ 넷,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안전교육
 - 전국 최초 환경교육체험센터 건립, 환경교육과 놀이교육 확대, 초록학교와 아토피 치유학교 확대, 성평등 교육과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평화교육 확산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

교육감 이력 (전) 충청남도교육감 (전) 충청남도의회 교육의원
(현) 한국 백혈병 소아암협회 충청지부 이사 (전)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전) 천안학교급식협의회 상임대표

4년간의 청사진

촛불 혁명 이후 처음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충남도민들이 보여주는 표심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대를 충남교육이 제대로 담아달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앞으로 4년간 펼쳐질 충남교육 활동은 '혁신 충남교육 2기'가 될 것입니다. 혁신 충남교육 2기의 목표는 '더 청렴한 충남교육, 더 미래지향적인 충남교육을 완성 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기회와 출발선은 평등해야 하고, 교육의 중심엔 학생이 놓여야 한다는 기본 정신으로 참학력 신장과 진로진학 강화, 마을과 함께하는 인성교육에 주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충남의 교육비전인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주요 공약

- ✔ **하나, 무상교육 실시**
 - 고교 무상급식, 고교 무상교육, 생애 첫 교복 무상 지급 전면 실시, 농어촌 학교를 위한 통학버스 확대, 안심귀가 택시 운영
- ✔ **둘,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실현**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국공립 온종일 돌봄 유치원 운영, 온 마을이 함께하는 인성교육
- ✔ **셋, 더 안전하고 쾌적한 충남교육**
 - 폭력·낙오·탈선·포기 없는 4제로 실현, 내진보장, 석명제거, 미세먼지, LED 조명 설비
- ✔ **넷, 기초학력과 창의력을 겸비한 인재 육성**
 - 학교별 기초학력 책임제, 초등 저학년 한글 교육 강화, 생각을 키우는 코딩교육, 손으로 만지는 메이커 교육 등 운영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

교육감 이력 (전) 전라북도교육감 (전) KBS전주방송 TV 「포커스 전북21」 진행
(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독일 Trier 대학교 법과대학 객원교수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 (전)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4년간의 청사진

전라북도교육청은 앞으로 주어진 4년 동안 첫째, 유아교육부터 고등학교교육까지 공교육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 전북교육을 만들어 갈 것이다. 둘째, 교육자치와 교육정의가 실현되도록 하겠다. 전북교육청이 앞장서서 명실상부한 교육자치의 시대를 열어가겠다. 교육의 영역에 부정부패와 반칙, 그리고 특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 셋째, 노동과 노동자를 존중하는 전북교육의 위상을 세우겠다. 넷째, 배움과 삶이 유기적 일체를 이루어 아이들의 성장과 배움을 돕는 참교육 실현에 집중하겠다. 다섯째,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내겠다. 여섯째, 교육청과 학교는 이 시대의 선한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는 명제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노동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

주요 공약

- ✔ **하나, 공교육 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 혁신학교를 넘어 모든 학교 혁신으로
 - 아이들의 미래를 밝혀주는 진로교육 강화
 - 코딩, 알고리즘 교육으로 미래형 교육체계 구축
- ✔ **둘, 교육예산 확대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계속 줄이겠습니다.**
 - 교육예산 확대로 전북교육 튼튼
 - 부모소득이 아이 학력이 되는 교육현실 개혁
 - 교육현장의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 ✔ **셋, 학교안전! 민주교육행정으로 교육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 안전하며 깨끗한 교육환경 만들기
 - 민관이 함께 만드는 전북교육자치시대
 - 교육행정 조직 내실화 및 시민참여형 조직 체계 구축
- ✔ **넷, 교육에 집중합니다. 선생님을 응원합니다.**
 - 학력이 쑥쑥, 교육에 집중하는 학교
 - 학습연구년제 확대, 교사행정업무 감축 등 선생님을 응원합니다.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

교육감 이력 (전) 전남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 (전) 518민족통일학교 이사
(전) 15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전) 영암미암중학교 교사

4년간의 청사진

200만 전남도민의 뜻을 받들어 전남교육을 바꾸겠습니다. 새로운 변화, 기본 좋은 변화, 담대한 변화를 통해 전남교육 성공시대·전남교육 행복시대를 열겠습니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학생 중심 교육행정, 교실 개혁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전남교육의 미래는 교실 안에 있습니다. 수업과 평가를 혁신하여 아이들의 미래 핵심역량을 키워내겠습니다.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잡무를 줄여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소규모학교가 많은 전남교육은 지역사회와 소통·협력이 중요합니다.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함께하는 소통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도·시·군 단위 교육자치위원회를 두어 지자체, 시민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도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남의 작은 학교를 살려내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관료주의, 권위주의 등 낮은 관습을 과감히 털어내겠습니다.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어 역동적이고 자발적인 교육행정을 구현하고, 교육현장에 민주주의가 꽃피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와 재정 분야를 혁신하여 내부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주요 공약

- ✔ **하나, 수업과 평가를 혁신하여 아이들의 미래 핵심역량을 키워내겠습니다.**
- ✔ **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 ✔ **셋,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 **넷,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함께하는 소통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교육감 이력 (전) 경북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전) 영창중학교 교장
(전) 경북교육청 교원지원과장 (전) 포항고등학교 교감
(전)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전) 연구사, 장학사
(전) 연구관, 장학관 (전) 경주여고 외 4교 교사

4년간의 청사진

경북교육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는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학교, 따뜻한 교육혁명! 성과보다는 과정을, 다그침보다는 기다림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경북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경북의 문화적 역량을 바탕으로 시대의 흐름에 앞장서 가는 경북교육을 만들어 경북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공약

- ✔ **하나, 학교 내 미세먼지, 유해물질 제로화 추진**
- ✔ **둘,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 ✔ **셋, 학생인권 및 교권보호를 위한 행복교육거점지원센터 구축**
- ✔ **넷, 미래 대비 경북수학문화관 및 메이커센터 건립, 진로진학상담센터 구축**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

- 교육감 이력**
- (전) 경상남도교육감
 - (전)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 (전)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전) 경상남도교육위원
 - (전) 전교조경남지부 사립위원장
 - (전) 창원문성고등학교 교사

4년간의 청사진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경남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까지, 연필 쥐는 법부터 창의적 사고력까지, 학생 안전부터 학생 인권에 이르기까지 우리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책임교육, 수업혁신으로 교실문화를 바꾸고 인권친화적인 문화 정착으로 학교를 변화하는 혁신교육, 미래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 변화를 주도하고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 가는 역량을 키우는 미래교육의 주춧돌을 놓아 '더 행복한 학교, 더 행복한 경남교육'을 만들어 갑니다.

주요 공약

- ✓ 하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까지, 연필 쥐는 법부터 창의적 사고력까지, 안전부터 학생 인권에 이르기까지, 책임교육을 실현합니다.
 - 전국 최초 「경남학생안전체험교육원」 설립
 - 전국 최고 수준의 미세먼지 대응 시스템 구축 등
- ✓ 둘, 보다 새로운 혁신교육으로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 교권과 학생인권을 함께 존중하는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
 - 지역사회와의 소통·협력으로 새로운 교육협력모델 구현 등
- ✓ 셋, 발아래로 다가온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최고 수준의 미래교육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주는 「미래교육 테마파크」 조성
 - 진로, 진학, 창업을 지원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진로교육원」 설립 등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교육감 이력**
- (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장
 - (전)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 제주연대 상임공동대표
 - (전)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시중부지회장

4년간의 청사진

지난 4년 이석문의 시즌 1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했습니다. 성과를 기반으로 시즌 2는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모든 아이들의 담임선생님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배려하고 협력하며, 함께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질 높은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공약

- ✓ 하나,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는 과정이 있는 평가와 수업으로 혁신하겠습니다.
- ✓ 둘, 올해 2학기 고교 전면 무상급식, 미세먼지 대비 공기청정기 설치 등 '제주교육복지특별도'를 실현하겠습니다.
- ✓ 셋, 제주의 모든 아이들이 국제학교 수준의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반도 시대에 맞는 4.3과 평화, 인권, 통일, 민주 교육을 하겠습니다.

학교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공동 수립한 중장기 계획으로, 유·초·중등교육의 지방 분권을 강화하고 학교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에 따르면 1단계로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모호한 교육부의 규제적 지침을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시도교육청 개별 또는 공통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시도교육청도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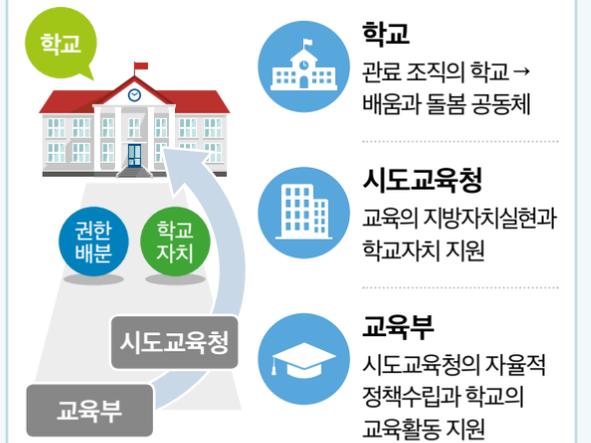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육자치 로드맵 1단계 조치로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모호한 규제적 지침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법령, 지침, 사업 등의 규제성 요소를 일괄 정비하는 등 80여 개의 과제를 추진 중에 있다. 즉 통제·관리 위주의 교육정책 관행과 문화를 혁신하여 시도교육청과 학교 구성원의 의사에 따라 학교가 학사와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처리 부담에서 벗어나 수업, 학생지도, 교무행정을 혁신하고 민주적 환경을 구축하도록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등한 협력적 관계라는 인식 하에 17개 시도교육청이 자율적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도교육청 역시 단위학교의 민주적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학교자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나갈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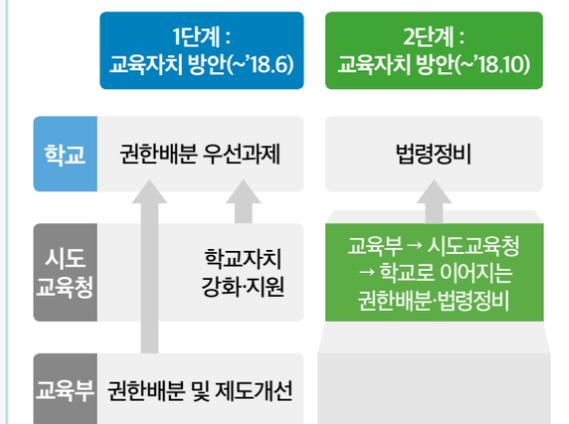
2단계에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권한 배분을 위한 법령 개정을 마련하여 입법에 착수(2018.10.)할 계획이다.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자치 관련 법령 개정, 사안별 이양 등 다양한 권한배분 방식의 장단점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등한 협력적 관계를 설정하여 방안을 마련하되, 국가의 책무성이 요구되는 영역은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7

비전과 전략

내 아이의 삶과 가까워지는 교육자치 “아이들에게 선생님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



교육자치, 새 출발과 성공의 길



6.13 지방선거가 끝났다. 모든 선거가 다 우리 일상의 삶의 향배를 결정짓지만 지방선거는 특히 우리 아이들 삶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 향후 4년 교육방향이 결정되는 교육감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이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혁신교육 기치를 내건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었다. 흔히들 사람들이 정치 는 진보를 지지해도 교육은 보수를 원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 왔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여전히 그 려 듯한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혁신교육을 주창한 교 육감들이 14명이나 당선된 것은 기존의 이런 애매한 해석들이 더 이상 우리 현실을 설명할 수 없 음을 보여준다. 결국 6.13 교육감 선거 결과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교육의 근본적 변화 필요성 에 동의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실천하겠다는 이들이 교육 권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일부 특정 진영 사람들 생각이 아니다.

교육자치 강화와 혁신교육 확대 정책

새로 당선된 교육감들이 밝힌 교육정책의 공통점은 교육자치 강화와 혁신교육 확대에 요약할 수 있다. 교육자치 강화와 혁신교육 확대는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에 있다. 교육은 사람의 가치관 과 태도, 능력을 형성시키는 것이며, 공교육은 사회구성원의 인간적 성장과 사회적 성장을 공적으 로 책임지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 개개인이 갖는 특징과 자질에 주목하는 것은 교육의 필수요소 다. 아이들 하나하나를 학습의 자율주체로 인정하고 그들의 능력과 자질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 록 하는 것은 개인에게도 성취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도 사회발전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 공통의 획일적 교육과정과 획일적 교육정책, 획일적 지침이 아니라 학생 개개 인의 특성과 조건, 교사들이 갖는 특징과 능력, 학교가 놓인 지역적 특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로부터 학교 자율성 보장과 교육자치가 요구된다.

이제 새로운 교육자치 시대의 문이 활짝 열렸다.

교육부와 새 교육감들의 협력으로 학교를 살리는 교육행정 혁신을 통해
교육자치와 혁신교육이 활짝 꽃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고속성장이 주도하던 시대에 공교육은 인적자원을 배출하는 기능에 종속되어 교육 본래의 기 능을 희생시켜 왔다. 학교는 교육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 대학과 사회가 요구하는 선발기관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래서 한 명의 빌 게이츠가 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명제가 공공연하게 회자되며 다 수 아이들이 소외되는 교육을 용인하고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배경이 되어 왔다.

교육행정체제 변화 없이 교육자치 어려워

이제 더 이상 1등만을 위한 교육, 더 많은 지식을 더 정확히 습득하는 교육, 객관식 문제풀이 능 력을 학력으로 인정하는 교육을 하지 않겠다는 것, 1등은 물론 2등부터 꼴등까지 모든 학생이 가 진 자질과 능력이 존중되고 골고루 꽃피워질 수 있는 교육, 지식을 활용하고 창조할 줄 아는 교육,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고 소통과 협업능력을 키우는 교육,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는 교육을 실 천하는 것이 혁신교육이다. 이런 혁신교육은 학생과 교사, 학교와 지역 단위의 자율성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하다. 따라서 교육자치와 혁신교육은 우리교육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 동시에 요구 되는 필수불가결한 과제다.

학교가 굴뚝 생산이 요구하는 산업노동자를 배출하던 시대는 이미 종말을 고하고 있다. AI가 인 간노동을 대체하는 디지털 중심 사회에서는 더욱 지식전달과 습득을 중시하는 과거의 교육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복잡하게 연결된 세상을 이해하고 그에 적용할 수 있는 주체적이며 통합적 인간 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중요해진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역시 교육자치 강화와 혁신 교육 확대를 요구하며 이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어버렸다.

다행히 2017년 교육부는 출범과 동시에 교육자치와 학교 민주주의 확대를 교육정책의 기본 방 향으로 천명한 바 있다. 교육자치와 혁신교육 확대를 위해서는 교육내용, 교육방법과 같은 소프트 웨어적인 혁신 뿐 아니라 교육환경, 교육행정과 같은 하드웨어적 혁신도 필요하다. 학교를 관리 와 통제 대상으로 보는 교육행정체제가 여전히 작동되는 한 교육자치도 혁신교육도 제대로 추 진되기 어렵다.

민주적인 교육행정체제로 전환하는 일

교육행정체제는 교육정책이 실현되는 기제이다. 아무리 혁신적인 정책도 과거의 관료적 교육행 정체제를 거치는 한 혁신이 왜곡되거나 변질될 수밖에 없다. 사실 8년 가까운 진보교육감 시대를 경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 전체 교육의 질적 변화가 전면화되지 못한 가장 큰 이 유 중 하나도 혁신교육을 담는 그릇인 교육행정체제는 여전히 지시와 통제, 관리 중심의 수직적

이고, 관료적인 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부와 교육감들의 가장 일차적인 과제는 교육부-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로 연결된 기존의 관료적 교육행정체제를 자치와 분권, 네트워크를 기본 원리로 하는 민주적 교육행정체제로 전환시키는 일이다.

모든 교육정책의 출발과 수렴지는 결국 학교이고 학교가 자율성을 획득하지 못하면 교육자치도 혁신교육도 반쪽짜리에 그쳐버릴 수밖에 없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지침과 예산을 지렛대로 학교교육을 세세하게 통제하고 관리하는 한 학교의 자율성은 살아날 수 없다. 지금 이야기되는 교육자치가 교육부의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겨 전국 17개 시도에 작은 교육부를 확대·복제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혁신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실천할 때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교육이 제대로 살아나게 하는 것을 ‘지원하는’ 기관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기존 업무방식과 조직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국가적 차원의 교육방향을, 교육감과 시도교육청은 지방 차원의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정책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이는 특교사업이라 불리는 교육부의 시책사업과 정책사업이라 불리는 시도교육청의 목적사업을 과감하게 없애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관료적 교육행정의 역사가 길고 뿌리가 깊기 때문에 이를 혁신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 역사상 지금까지 혁신교육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았던 적이 없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감들이 같은 교육철학과 기초를 가지고 일치된 구성을 했던 적도 없다. 더 없이 좋은 정치적 환경을 갖게 되었다. 이런 조건에서도 시대적 요구이며 국민적 명령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이는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교육행정체제 혁신은 일반시민이나 교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며 교육부와 시도교육감들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이제 새로운 교육자치 시대의 문이 활짝 열렸다. 교육부와 새 교육감들의 협력으로 학교를 살리는 교육행정 혁신을 통해 교육자치와 혁신교육이 활짝 꽃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㉔



강민정
(사)정검다리교육공동체 상임이사

필자는 북서울중학교 혁신부장, 서울시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정책연구 교사를 지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혁신학교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위원, 교육부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그동안 서울형 혁신교육 발전방안,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교육행정체계 개선방안 등을 연구해 왔으며 저서로는 『혁신학교, 한국교육의 미래를 열다』(살림터), 『혁신교육지구란 무엇인가』(맘에드림) 등이 있다.



학교 단위에서의 스웨덴 교육자치

교육감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도 교육 문제의 대부분은 교육부에서 결정한다. 그뿐만 아니라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단위 학교에서의 교육자치는 아주 미미한 실정이다. 일찍부터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있는 스웨덴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교육자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해 둘 것은 스웨덴과 핀란드의 행정체제가 대동소이하고 교육도 같은 틀 속에서 이루어지기에 이 글 내용의 대부분이 핀란드에도 적용된다.

스웨덴의 교육자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교육에서의 역할 분담을 통한 교육자치이고, 둘째는 예산 배분에 의한 교육자치이다.

역할 분담을 통한 교육자치

스웨덴의 행정체제는 3개의 차원으로 나누어져 있다. 의회와 정부, 그리고 중앙행정기관들로 이루어진 중앙기관들과 우리나라의 시·도 차원인 21개의 란스팅(Landsting), 그리고 290개의 지방자치단체인 콤문(Kommun)이다. 여기서 두 번째 시·도 차원은 독립병원과 도차원의 교통만을 책임지고 있어 교육 문제는 중앙기관들과 290개의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있다.

중앙기관인 의회, 정부, 국가교육청은 교육의 목표와 방향

을 제시하는데 이것은 교육법, 교육시행령법, 커리큘럼과 실러버스(curriculum and syllabus)에 잘 나타나 있다. 중앙기관들은 집권당의 교육정책과 민의를 반영하고 연구와 평가들을 통해 나온 결과들을 활용하여 스웨덴 교육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위의 법과 커리큘럼에 담는다. 물론 이 세 중앙기구들 사이의 역할은 서로 다르다.

지자체는 소속 학교에 예산을 배분하고 학교를 새로 설립하거나 학교의 문을 닫는 중요한 일과 학교시설에서 생기는 큰 문제들을 관리하고 책임진다. 교장, 교사 및 행정 직원들은 지자체에 속하는 지방공무원이라 할 수 있으며 공모를 통해 선발된다. 학교단위에서는 교장과 교사가 교육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책임진다. 어떠한 교수·학습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어떤 교재를 선택할 것인지, 학교 내에서 동료교사들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등은 해당 학교의 교장과 교사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스웨덴 교육은 세계에서 가장 지방분권화(decentralization) 또는 자치(autonomy)가 잘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스웨덴의 교육과정(curriculum & syllabus)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면 교장과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스웨덴의 교육과정은 세 영역-교육목표, 주요 내용, 성취도 기준-이 순서대로 구성되어 있고 짧고 포괄적



인 용어로 기술되어 있다. 즉, 우리나라 교육과정처럼 구체적이지 않다. 중앙기관들이 결정하는 것은 교육의 목표, 가치 그리고 주요 내용과 성취도 기준을 담고 있는 교육과정과 교육법 부록에 제시되어 있는 초, 중 의무교육 9년 동안의 교과 이수시간이다. 예를 들어 의무교육 9년 동안 스웨덴 어(1490h), 영어(480h), 수학(900h), 사회과학(885h), 자연과학(800h), 체육과 건강(500h) 등 교과별 이수시간 외에 학생 선택과목(382h) 및 학교가 특성화할 수 있는 선택시간(600h) 등 9년을 통틀어 6,665시간을 이수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이 규정에 맞추어 각 학년에서 가르칠 과목과 시수를 교장과 교사가 의논하여 결정한다. 교사가 교육과정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어떤 교수·학습 방법을 사용하고 교재를 선택하는지는 교사의 자율성과 재량권에 맡겨져 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교육과정을 목표 위주로 구성하고 포괄적 언어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 너무 구체적인 교육과정은 교사들의 창의성을 제한한다.

예산 배분에 의한 교육자치

교육에 있어서의 예산 크기와 투자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다. 스웨덴은 교육재정에 있어서도 중앙기관과 지자체 사이에 역할분담이 뚜렷하다. 중앙정부는 대학교육과 국립교육청과 같은 중앙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을 책임지고 배분한다. 290개의 지자체는 자신의 지자체에 속하는 유, 초, 중, 고등학교와 성인교육에 필

요한 예산을 세금을 통해 확보하고 이를 각 학교에 배분한다.

스웨덴의 전체 교육예산은 대체로 GDP의 8~9%에 달하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0조원 정도가 된다. 여기서 약 20%는 대학교육 예산이고 그 외에는 지자체가 편성하는 유, 초, 중, 고, 성인교육에 드는 예산이다. 전체 국가예산에서 교육 예산은 약 15% 정도로 큰 변화가 없다.

정부는 국세의 일부와 지자체로부터 각출한 지방세의 일부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로 재분배한다. 즉 스웨덴에서는 살고 있는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양질의 교육 및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일부 여건이 좋은 지자체로부터 각출하여 열악한 지자체로 나눠주는 세금을 로빈훅(Robinhood) 세금이라고도 하나 실제 이름은 재원평준화이고 이는 소득평준화와 비용평준화로 나누어서 산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정부가 한 해 재분배하는 평준화재원은 약 12조원 정도로 정부 전체 지출의 약 8%가 된다.

지자체의 전체 재원은 소득세(지방세라고 부르기도 함)로 거둬들이는 세금과 정부로부터 받는 평준화재원 그리고 자체 사업에 의한 수익이다(물론 재원평준화 제도에 의해 정부에 지출하는 부분이 큰 지자체도 있다). 각 지자체는 이렇게 확보되는 재원으로 국가가 정하는 복지를 주민들에게 배분다. 교육에 있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90개의 지자체가 유, 초, 중, 고등학교와 성인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서 배분한다.

지자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학교에 예산을 배분하면 학교

에서는 교장의 책임 하에 예산을 집행한다. 학교로 내려오는 예산은 ‘한 뭉치의 돈(총액)’으로 내려오지 우리나라처럼 아주 상세하게 어디에 얼마만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것을 학교단위에서의 ‘예산총액제’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교육자치의 큰 역할을 한다. 이 예산이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는데 학교상황에 따라 교사 한 명을 더 채용할지, 특수교사 한 명을 더 채용할지, 학급 편성을 달리할지 등은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교장이 교직원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즉 주어진 예산으로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며 교육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는 교장의 결정과 책임 하에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학교 내에서도 예산이 각 교사에게 배분되어 집행되므로 예산 사용에 있어 교사들의 자율성이 크다. 물론 1년 동안 각 교사는 어떤 사업을 하고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필요한지를 미리 계획을 세우고 교장으로부터 예산을 받아야 한다. 매번 예산이 필요할 때마다 교장에게 예산을 청구하거나 집행을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 예산 사용은 당연히 투명하게 하고 증빙서를 첨부해야 하나 많은 부분은 합리적 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증빙하면 된다. 이렇게 학교단위에서 예산 사용에 대해 학교장 및 교사의 재량권을 확대한 이유는 학교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학교장과 교사에게 예산 사용의 자율성을 주어 필요에 따라 예산을 사용하게 하기 위함이다. 예산을 얼마나 받느냐보다는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자치를 더욱 발전시키고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정부·교육청·학교 간의 교육 역할 분담뿐만 아니라 교육재정 부분에서도 학교장과 교사에게 지금보다는 훨씬 큰 자율성과 재량권을 주어 양질의 교육을 이끌어내는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예산 배분 결과

스웨덴 교육법은 ‘교육이 스웨덴 어디에서 행해지든 그 질은 동등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수업(강의)은 모든 학생의 여건과 필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동등한 교육이라는 것은 수업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거나 예산이 똑같이 배분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처한 여건과 필요에 따라 수업이 이루어지고 예산이 배분되어야 한다.

스웨덴의 교육예산은 교육법의 이런 정신에 기반하여 학생 수가 똑같다 하더라도 학교가 처해진 환경에 따라 예산의 크기는 아주 다르다. 스톡홀름 지자체의 경우 교육 여건이 좋은 학교와 교육 여건이 열악한 학교에 배분되는 예산 크기의 비율은 약 1:1.5 정도다. 주로 전쟁 난민의 자녀들이 많은 학교가 가장 열악한 학교로 간주되고 장애학생들이 많은 학교도 당연히 예산을 많이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지적 장애학생에게 주어지는 예산은 일반학생보다 4~5배로 많고 시청각 및 언어 장애 학생에게는 보통 학생들의 10배 이상의 예산이 주어진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자치를 더욱 발전시키고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스웨덴 사례에서 본 것 같이 정부·교육청·학교 간의 교육 역할 분담뿐만 아니라 교육재정 부분에서도 학교장과 교사에게 지금보다는 훨씬 큰 자율성과 재량권을 주어 양질의 교육을 이끌어내는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㉔

부산다행복학교_ 부산진초등학교

전교생이 책 속에 풍덩 빠지는 특별한 책뜨락

올해 부산다행복학교 3년차에 접어든 부산진초등학교(교장 임혜경)는 전교생이 참여하는 ‘역사와 함께 걷기’, ‘책뜨락’ 등 특색 있는 교육과정이 넘쳐난다. 이런 부산진초의 원동력은 민주적인 학교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교사다모임, 학년군다모임 등을 통해 학년, 학급의 벽을 허물고 혼자서 10걸음을 걷기보다는 10명의 동료와 한 걸음씩 함께 걸어 나가듯 동료교사들 간의 ‘집단지성’을 발휘하며 ‘모두(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간다.



1

“연평균 40여 회 이상의 교사다모임, 학년군다모임을 해 오고 있어요. 학교에서 논의해야 하는 모든 문제는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데 교사들의 자발성과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영화(다행복학교 담당) 교사의 설명이다. 매주 화요일 전교사가 참여하는 다모임은 부산진초의 중요한 학교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민주적인 과정과 교사의 자발성이 뒷받침되기에 다모임 내내 교사들의 의견이 활발하게 논의된다. 서로 자주 만나 교육활동을 의논하고 이 자리에서 결정된 사항은 학교 교육활동에 바로 반영된다.

네와 연계된 현장체험학습이 진정한 현장체험학습이 아니겠느냐”고 제안했다. 그 이듬해 2월 교사다모임에서 본격적으로 트레킹과 근현대사를 주제로 한 체험학습 코스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렇게 학교 뒤뜰에 있는 박재혁의사비를 중심으로 학교 근처에 있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근현대사 유적지를 찾아다니면서 학년 발달단계와 교육과정을 연계한 학년별 코스를 개발해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

역사가 아이들의 삶으로 들어온 순간 아이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이런 분위기를 이어서 3·4학년군 전문적 학습공동체에서는 각종 문헌과 자료에서 역사적 의미를 찾아내



1. 금요일 1~2교시, 도서관에서 책읽기에 빠진 3학년 2. 3. ‘역사와 함께 걷기’에 참여 중인 4학년들

임혜경 교장은 “다행복학교의 가장 큰 성과는 단연코 민주적인 학교문화라고 생각한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좀 더 나은 해결책이 나온다.”며 “자신의 생각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 이것이 민주적 학교문화의 시작이고 우리 학교의 원동력”이라고 말한다. 좋은 의견이 있어도 교사들이 말하기를 주저할 때가 있다. 동료교사들에게 거부당하지 않을까?, 혼자서 업무를 떠안지는 않을까? 망설여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산진초에서는 뭔가를 하고자 할 때 동료들이 지지해 줄 거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다.

“역사 트레킹을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2016년 11월경 각 학년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평가를 나누는 교사다모임에서 한 교사가 “아이들이 살고 있는 우리 동

고 수차례 현장답사를 통해 각 학년에 적합한 코스를 개발하고 자료집을 만들었다. ‘역사와 함께 걷기’가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그 결과 3학년은 학교에서 가까운 자성대, 조선통신사기념관을, 4학년은 매축지마을, 정공단, 일신여학교를, 5학년은 동래지역의 복천동 고분군과 박물관, 동래부 동헌 등을, 6학년은 부산근대역사관, 40계단기념관, 영도다리 등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체험학습을 설계하였다. 3·4학년군 선생님들도 이 과정에서 무척 즐거웠으며, 아이들은 평소 그냥 지나쳤던 장소,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배우게 되면서 무척 놀라워했다.

하영화 교사는 “‘역사와 함께 걷기’는 아이들의 삶과 직접 연관된 체험이다. 6년의 체험을 통해 좀 더 체계적으로 역사를 이해할 수 있었으면 하는 선생님들의 마음이 담긴 활동”

사랑과 정성이 담긴 교육

이라고 말한다. 부산진초 교
4 사들의 집단지성은 ‘책뜨락’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다행복학교 2년차 교육과정 평가에서 1-6학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연계 교육활동이 필요하다는 교사들의 합의가 이뤄졌고, 논의 끝에 ‘책뜨락’ 활동을 시작했다.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게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온작품읽기와 1학기 1권 읽기를 해오고 있다. 책읽기를 습관화하고 학년 연계 교육활동이라는 본질을 유지하기 위해 매주 금요일 1-2교시에 학년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책읽기 교육이 이뤄진다. 책뜨락 활동으로 갑작스레 독서습관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책 속에서 그동안 몰랐던 재미를 발견하게 되고, 슬로리딩을 통해서 사고력이 확장되는 경험을 하고 있다. 도서관의 편안한 소파에 앉아 독서 삼매경에 빠진 아이들, 책을 읽고 질문을 만들어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는 아이들, 책을 읽고 티셔츠에 생각을 표현하는 아이들 등 책을 매개로 할 뿐 방식은 학년의 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운영된다.

우리의 놀이공간은 우리 손으로

학생들의 자치활동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부산진초는 기존의 학생회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단, 학년을 대표해서 회의에 참석하는 대의원, 안전을

선정하는 안전선정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들 스스로 안전을 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회의를 이끌고 있다.

학교 복도와 자투리 공간을 놀이공간으로 꾸민 것도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크게 작용했다. 박현욱(학생자치회 의장, 6학년) 학생은 “학교 내 자투리 공간이 많다.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학생자치회의를 통해서 놀이공간으로 만들게 됐다. 이곳은 친구들과 보드게임도 하고 휴식을 취하거나 이야기도 나누는 우리들의 특별한 공간”이라고 소개한다.

하영화 교사는 “교사들이 주도해서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학생자치회의에 안전으로 상정하고, 각 학년별 대의원들이 각 반의 의견을 수렴하여 놀이공간에 배치했으면 하는 놀이 교구들이나 놀이공간을 설계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아이들의 놀이공간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이용할지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민주시민으로 한 뼘 성장하고 있다. 선생님들의 섬세한 배려를 깨닫고 감사함을 전해주기도 한다. 교직원들은 지난해부터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교문 아침 맞이를 해오고 있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학생자치회를 중심으로 많은 학생들이 스승의 날 아침 맞이를 해주었다. 교문을 들어서면서 들려오는 스승의 날 노래와 정성스레 쓴 손편지로 교직원들이 흐뭇한 하루를 보냈다고 한다.

4. 부산진초의 교육철학이 담긴 표어
5. 6. 학교에서 보내는 1박 2일의 특별한 경험 ‘학교캠프’

7. 자투리공간을 놀이공간으로 만든 아이들
8. 다 같이 읽고 질문을 만들어 생각을 나누는 1학년 아이들



을 키우는 ‘창의적인 교육과정’, 존중과 배려가 있는 학교 문화를 비롯하여 인권과 회복적 생활교육을 실천하는 ‘윤리적 생활공동체’, 협력적 배움과 성장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소통과 참여의 협의 문화와 리더십을 통한 집단지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돕는 ‘민주적 학교 운영 체제’ 이 4가지는 부산다행복학교의 지향점인 동시에 부산진초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부산다행복학교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다행복학교는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지향하는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로서 학교운영 및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공동체 간의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를 추구하고 있다. 배움 중심의 수업과 성장 중심의 평가를 통해 미래 역량

의 발자취이기도 하다.

“다행복학교가 있어 학교생활이 즐겁다.”는 박수완(6학년) 학생은 “우리학교에서는 모두 함께 책을 읽고, 다양한 체험 학습을 하며 우리의 역사를 배우고, 학교에서 1박 2일 캠프를 하며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학교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다. ⑤

INTERVIEW “교사의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민주적인 학교문화”



임혜경
부산진초등학교 교장

Q 부산진초의 혁신교육 철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혁신교육을 말할 때, 무엇을 혁신하기 위함인지 먼저 생각해봐야 합니다. 교사의 이야기가 없는 학교의 회의문화, 교과서의 순서대로 진행되는 똑같은 수업, 우리학교만의 특별한 것이 없는 특색교육활동, 그 속에서 힘들어하는 선생님과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형성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서로 함께 배우고 성장하면서 저마다 가진 싹을 띄워서 제각각의 꽃을 피우고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제 몫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를 바랍니다.

Q 다행복학교로 출발한지 3년차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꼽는다면.

학년 연계 독서교육인 책뜨락 활동, 아이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하고 교육과정을 연계 학년별로 진행되는 ‘역사와 함께 걷기’ 활동, 아이들에게 꿀맛 같은 추억과 감동을 선사하는 1박 2일 학교캠프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선생님들의 자발성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교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장, 교감, 교사라는 직위의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좀 더 나은 해결책이 나옵니다. 교장인 저는 선생님들이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혁신학교 4년차, 그 이후의 모습을 설계하고 있어요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현재 하고 있는 교육활동과 문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동안 다모임을 통해 해왔던 협의 내용을 기록한 ‘(가칭)부산진초등학교 사업설명서’를 만들어서 시스템화하고 있습니다. 다행복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정애경 서울국제고등학교 교사 “행동하는 교사로 아시아 교육공동체를 만듭니다”

뭔가 평범하지 않다. 누군가를 ‘도깨비’에 비유할 때는 남다른 무언가가 있기 때문일까. 오래전부터 ‘도깨비’로 불린다는 이 사람. 정애경(61) 서울국제고등학교 교사를 지칭할 때는 “항상 도전하고 깨어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모두가 도깨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온 정 교사의 작은 바람이기도 하다.



꿈꾸는 교사를 위해 NGO 대표가 되다

“오는 8월에는 몽골로 교사 연수를 떠납니다. 9월부터는 네팔과 라오스에서 활동하기 위한 사전 교육을 12월까지 하고요. 이듬해 1~2월에 네팔과 라오스로 떠날 예정입니다.”

정애경 교사의 스케줄은 이미 내년 상반기까지 꽉 차 있다. 방학이 시작되기 전부터 해외 일정은 매년 빼곡히 잡혀 있다. 교육개발협력 NGO인 세계시민교육연구소 대표. 그의 명함에 적힌 또 다른 직함이다.

“교사가 교사를 돕고 지원하는 교육개발협력 NGO입니다. 한국의 교사들을 비롯하여 아시아 교사들의 협력이 상생의 아시아교육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모였지요. 교사들도 국제이해와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 국제 교육자원 활동을 통한 교육리더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우연히 참여한 몽골 울란바토르 녹화사업은 그를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었다. 고비사막을 자전거로 타고 넘은 그날 이후, 세상을 향해 열린 그의 마음은 2002년 경희대 NGO대학원에 진학해 더 깊은 공부로 이어졌다. 대학원 인턴십으로 참여한 케냐 북부 수단 난민촌에서의 구호활동은 그에게 해외 교육봉사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했다. 아이들이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길러지고 있는 모습이 교사인 그의 눈에 뼈아프게 남았기 때문이다. 이후부터 그는 아이들과 함께 해외 교육봉사 활동을 다니기 시작했다. 2007년에는 해외봉사단체 코피온(COPION)의 청소년 해외봉사 인솔교사로 활동하면서 방학마다 공적개발원조(ODA)를 필요로 하는 아시아 국가를 방문했다. 학생들에게는 개발도상국의 문제를 이해하고 상생의 필요성을 배우는 좋은 기회였지만, 그에게는 매회 같은 지역과 학교를 방문하는 일보다 “현지 학교의 자생력을 키우는 발전적인 방안”에 대한 깊은 고민으로 이어졌다. 이후 보다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 교사들과 힘을 모은 결실이 바로 세계시민교육연구소다.

서로 배우는 나누는 국제 ‘교육자원’ 활동

“우수한 교사로 평가받던 선배 교사가 35년 경력을 뒤로하고 명예퇴직을 신청하셨어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모두 바쳤지만 교육 현실에 실망하며 돌아서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교사들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도 컸지요. 교사들은 원래 배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열어주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눈을 떴으면 하는 바람도 컸어요.”

그래서 세계시민교육연구소는 ‘꿈꾸는 교사, 행동하는 교육공동체’를 추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아시아 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일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여기에는 85명의 교사 외에도 학부모, NGO 단체를 포함한 총 120여 명이 회원이 되어 함께 뛰고 있다. 온라인 카페 회원까지 하면 500여 명이 훌쩍 넘는다.

이들은 네팔, 라오스, 몽골 3개국을 중심으로 국제 교



1. 세계시민교육연구소 활동 결과 자료집
2. 몽골교사 교육역량 강화 워크숍





육자원 활동을 펼친다. 도움을 주는 ‘봉사’를 넘어 서로 배우고 나누는 ‘교육자원’ 활동이다. 네팔에서는 네팔 교사와 학생들과의 워크숍과 협력수업을, 라오스에서는 예비 교사들을 위한 교육적 전문성 지원을, 몽골에서는 몽골교사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연다. 지난해에는 몽골 교육부 산하 교원능력개발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라 방문조차 쉽지 않았어요. 라오스 교육부 장관을 직접 만나 우리의 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지요. 영어 의사소통에도 제약이 많아 사범대 예비교사들부터 먼저 만나가고 있어요.”

네팔에서는 임흥길휴먼재단의 네팔 휴먼스쿨을 중심으로 사제동행 국제 교육자원 활동이 이뤄진다. 학교를 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학교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도 중요하다.”는 데 서로 뜻을 모았기 때문이다.

이해와 공감에서 시작하는 세계시민교육

현지의 호응은 매우 높다. 오는 겨울방학에는 라오스 교사와 수업 배틀(?)도 약속돼 있다. “한국 교사의 전문성이 무조건 우수하지 않다. 최소 6개월의 교육과정부터 파악하고 만나자.”는 너무도 당당한 라오스 영어교사의 모습을 통해 반성적 성찰과 상호존엄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이것을 계기로 양국의 교육과정을 진지하게 연구하며 진정한 자원활동으로서의 의미까지도 되새기고 있다.

사제동행으로 떠나는 학생들도 서로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다. 몽골에서 양국 학생이 함께 연극무대에 오르기로 한 날, 예기치 않은 갈등이 벌어졌다. 한국 여학생이 입어야 하는 몽골의 전통의상이 노출이 심해 여학생이 “입지 않겠다.”며 울었고, 그 사실을 안 양국 남학생끼리 격한 말이 오간 것. 정 교사는 아이들에게 함께 문제를 풀어보라고 요청했고, 아이들은 모여서 토론한 뒤 서로 사과하며 더욱 친해지게 됐다.

“세계시민은 이해와 공감에서 시작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생각을 받아들일 줄 알고, 서로 간 공감을 통해 다르지 않다고 느낀다면 하나라는 공감대가 생겨납니다.”

해외 교육자원 활동을 할 때도 3개월간 사전교육을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방문하는 나라 사람들의 삶에 대한 성찰과 문화 이해 교육이다. 매회 자비를 들여 16명 정도의 교사가 떠나는데, 돌아온 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세계시민교육은 더 큰 효과를 보여준다. 별도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기보다는 수업 안에서, 아이들의 일상생활에서 스며드는 교육으로 이뤄진다. 국어를 가르치는 정 교사는 수업 시간, 한국 문학뿐 아니라 베트남, 몽골 등 아시아 문학도 다룬다. 특히, UN 기념일이 있는 달에는 두 기념일을 정해 5차시 수업을 한다. 올 3월에는 세계 여성의 날(3.8)과 세계 물의 날(3.22)을 맞아 여성과 물에 관한 글로벌 이슈와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평화의 동화책’ 수업은 미래의 아들·딸에게 읽어줄 동화책을 만드는 고3 학생 대상 수업이 있음에도 호응이 높았다. 동화책에는 나와 다른 이에 대한 이해와 화해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한 남학생은 발표하면서 울음을 터트렸다.”며 나와 너 우리에게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봉사로 세계로 나아가는 교육자의 길

이 외에도 그는 고등학생, 대학생, 학부모 대상 세계시민교육과 국제이해교육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서울 초·중등 국제이해교육연구회와 서울 초·중등 세계시민교육연구회 등 교사들이 세계시민의식에 대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교사의 자기개발을 통해 학생과 교육 현장의 변화도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육공동체 형성에 힘을 쏟고 있다.

“사람 존중 사회, 사람이 귀하게 여겨지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싶었어요. 지금은 교육을 통해 이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는 1981년 교단에 선 이후부터 결손 가정의 학생 정서지도에 힘을 쏟으면서 휴먼에듀 활동을 펼쳐왔다. 이후에도 봉사 지역네트워크를 조성하고 학교 단위 봉사지원기구를 만들어 학교-가정-사회의 삼위일체 봉사릴레이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 이런 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해 봉사활동 전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봉사활동을 봉사학습의 차원으로 접근하고, 1990년대부터는 세계화 물결에 동행하면서 세계시민교육을 이어오고 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던 교육자의 길, 봉사로 세계로 향하는 그의 삶에 나이트처럼 새겨지고 있다. ㉞

3. 정 교사가 집필자로 참여한 세계 시민교육 교과서를 들고 있는 서울국제고 학생들
4. 세계시민교육연구소는 교원 봉사단을 발족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5. 그는 케냐난민 구호활동 당시 말라리아로 후유증으로 오른쪽 눈의 시력을 거의 잃었다. “죽다 살았다.”면서도 그의 열정은 더 커졌다.
6. 교사들은 아시아 국가와 협력 수업 등을 통해 국제 교육자원 활동을 펼친다.

충북 진천 덕산중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덕산수박' 알리는 마을지킴이



1

지역의 명물 '덕산수박' 알리기 대작전! 학생들은 직접 수박화채를 만들고, 광고 문구를 쓰고, 그림을 그리면서 '덕산수박' 홍보에 팔을 걷어붙였다. 오늘은 충북 진천 덕산중학교(교장 김진균)의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교육활동의 날' 학교 운동장에서 한여름 무더위를 싹 날려줄 아이들의 물총놀이가 막 시작됐다.



2



3



4

- 1. 2. 덕산의 수박왕을 가리는 한 판 승부, 물총놀이
- 3. 지역의 명물 '수박'으로 만든 화채
- 4. 전교생이 둘러앉아 먹는 수박화채의 맛이 일품!

“덕산 꿀수박, 지구의 여름을 식혀주는 가장 좋은 과일! 무더운 하우스 속에서 수박농사를 지으시는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6월 25일, 충북 진천 덕산중학교(교장 김진균)의 5~6교시. 아이들은 지역의 특산물인 '덕산수박'과 함께하는 신나는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가사실에서는 '실따라 바늘따라 동아리' 학생들이 시원한 수박화채를 만들었고, 결개그림 동아리 학생들은 수박을 밑그림으로 한 대형 결개그림을 손수 그렸다. 이어 운동장에서는 1학년 학생들이 '수박 헬멧'을 머리에 쓴 채 시원한 물총놀이를 즐겼다.

덕산중의 전교생이 참여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이다. 이날 수업은 특별히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교육활동의 날'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올 여름 들어 가장 무더웠던 날. 하지만 친구이자 적군들에게 물총세례를 쏟아 부으며 게임 삼매경에 빠져드는 학생들의 신명은 그 열기를 가라앉혀주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였다.

'덕산수박' 브랜드 알리기 대작전!

“저희는 원래 한 땀 한 땀 십자수를 놓는 동아리인데, 오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실과 바늘은 잠시 내려놓고, 수박화채를 만들기로 했어요. 전교생이 다함께 나누어먹을 거라 더욱 정성스럽게 만들고 있죠.”

이곳 가사실에서 만난 윤명경(3학년) 학생은 선생님과 친구들, 또 후배들과 함께 나누어먹을 시원한 수박화채 생각에 한껏 들떠 있었다. 6교시, 운동장에서 바로 그 수박화채를 맛보며 후배들의 게임을 응원하던 한밀레나(2학년) 학생은 기자에게 최근 타 학교에서 이곳으로 전학을 왔노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미래 꿈이 동시통역사라는 한밀레나 학생은 “전학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친구들과 언니들이 친절하고 또 따뜻하게 대해줘서 잘 적응하고 있다.”고 귀땀했다.



이채빈·장수하·최예인 학생 등 걸개그림 동아리 학생들이 이날 그린 대형 그림은 7월 9일부터 21일까지 덕산면 용봉리 들뜰에 게시하게 된다. 진천 덕산면 지역은 이 ‘덕산수박’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수박농가는 물론 지역사회가 함께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동아리 지도를 맡고 있는 하태복 교감은 “학생들이 지역을 탐색하고, 지역문화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학교특색활동으로 이 걸개그림 동아리가 처음 만들어졌다.”고 소개했다. 학생들은 또 이날 그림을 그리면서 수박농사로 고생하는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갖게 될 것이라면서 하 교감은 이 동아리 활동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덕산중의 또 다른 특색활동 프로그램인 풍물반. 이날 학생들의 풍물반 수업에는 덕산풍물단 안병현 단장을 비롯하여 임점수 사무국장, 그리고 10여 년 넘게 이 덕산풍물단에서 상쇠를 맡고 있는 이은녀 씨 등이 학교의 초청으로 수업에 참관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 프로그램

이날 진로실에서는 진로동아리 학생들이 모여 한지공예를 배웠다. 연필꽃이 만들기에 빠져 있던 1학년 오현규 학생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몰랐던 직업에 대해 많이 알게 돼서 무척 신기했다.”며 제법 의젓하게 말했다. 또 손민혁(1학년) 학생은 “친구가 함께 하자고 권유해서 이 동아리에 들어왔는데, 수업할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어

재미있다.”며 웃어보였다. 이 진로실의 생활공예 프로그램에서는 자녀와 함께 하는 어머니 수강생도 만날 수 있었다. 학부모 황은미 씨는 “특히 농사철엔 더욱 바쁘다 보니 많은 학부모들이 자주 시간을 내기가 쉽진 않지만, 학교에서 지역주민들도 동참할 수 있는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면 참가하고 싶다.”고 전하기도 했다.

매주 월요일, 덕산중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활동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학교를 개방하고 있다.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유화교실과 기타교실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유화교실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 송향주 씨는

“강의 공간과 그림을 그릴 장소를 찾지 못하면서 모임이 해체될 위기에 놓였다가 학교에서 이곳 미술실을 제공해 주시면서 모임이 지속될 수 있었다.”며 고마워했다. 회원 정지영 씨는 “유화의 경우 특히 이젤 등 화구 사용에 불편함이 존재하지만, 이곳에는 필요한 도구들이 모두 갖춰져 있어 그림 그리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이라고 흡족해했다. 이 유화교실에 참여한 아마추어 작가들은 지난 6월 20일부터 5일 동안 이곳 다목적 전실에서 덕산중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그림으로 여는 세상’ 전시회에도 가질 수 있었다.

기타교실은 애초에 다문화가정을 위한 학부모와 자녀를 위해 개설된 프로그램. 현재는 주로 인근의 초·중등 학생들이 기타를 배우기 위해 이곳을 찾고 있다. 교실에서 만난 박은수(옥동초교 5학년) 학생은 “기타를 2년 정도 배우다가

학생·학부모·지역사회 등 모두가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다문화 사회의 적응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학교의 전 구성원이 노력하고 있다.



중단했는데, 이곳 학교에 기타교실이 새로 생기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돼 무척 기뻐다.”고 들려줬다.

‘덕산자율방범대’의 하교 지원 봉사활동

“저희 덕산면 인근 3개의 농공단지 중심을 약 2,000여 명의 다문화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덕산중에도 중도입국가정(우즈베키스탄) 자녀 4명이 현재 재학 중이고요. 현재 이들 학생들은 간단한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김진균 교장은 그러면서 “학생·학부모·지역사회 등 모두

- 5. 지역 특산물인 수박을 알리기 위해 걸개그림을 그리는 학생들. 걸개그림이 완성되면 덕산면 용봉리 들뜰에 게시할 예정이다.
- 6. 덕산 풍물반
- 7. 문화·교육시설이 취약한 지역 여건을 고려해 방과 후에는 학교를 지역민과 학생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지역민을 위한 유화교실
- 8. 인근의 초·중학생을 위한 기타교실
- 9.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 늦은 하교를 하는 학생들을 위해 지역사회는 덕산자율방범대를 조직해 안전한 귀가를 책임지고 있다.

덕산중의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교육활동 참여·소통·협력의 교육공동체를 구현한다!



김진균
충북 진천 덕산중학교 교장

충북 진천 덕산중학교의 2018년 특색사업의 키워드는 ‘참여·소통·협력의 교육공동체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특히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운용이 학부모와 지역민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지역 특산물 ‘덕산수박’의 브랜드 제고를 위해 학생들이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는가 하면, 타 학교 다문화가정 자녀들까지 지원하는 초·중등학생들의 교육프로그램도 학교 차원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도 이에 보답하듯 덕산자율방범대를 조직,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하교하는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6년째 지원하고 있다. 덕산중의 전 구성원들은 지역사회의 문화적 역량 축적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는 중이다.

김진균 교장은 “앞으로 덕산중은 지역사회의 교육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소규모 농촌학교의 발전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의 적응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학교의 전 구성원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덕산중에서 기타교실에 이어 인근지역 다문화가정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한글교실에도 더욱 힘을 쏟고 있는 이유기도 하다.

덕산중과 지역사회 네트워크와의 협력 프로그램은 월~목요일 밤 8시 50분, ‘덕산자율방범대’의 하교 지원 봉사활동으로 이어진다. 2012년 자율방범대의 초대 대장을 지낸 홍승의 씨는 “방과 후 학교에 남아 야간자율교실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해 차편이 없는 지역에 승합차 지원으로 안전한 귀가를 돕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에 대해 김진균 교장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학생의 과제 및 학습지도를 통해 학습부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기르는 데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2

경남 행복마을학교

아이들도 마을 주민들도 배움으로 하나 되다

“삶을 배웁니다.”

경남 창원 행복마을학교가 지난 4월 말 문을 열었다. 지역 공동체인 ‘마을’에서 ‘배움’이 일어난다는 의미를 담아 행복마을학교라 이름 지어진 곳이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마을 주민들과 한데 어울려 배우고 소통하며 ‘더불어 사는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다.



- 1. 업사이클링 교실에서 직접 재활용해 만든 제품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대진초 아이들
- 2.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제빵교실
- 3. 초벌 그릇에 그림을 그리는 도예교실 모습

평일 오전 9시 반이 되자 웅기종기 모여드는 아이들. 지난 6월 21일에는 김해 대진초 전교생 67명이 행복마을학교를 찾았다. 학생들 작품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1·2층 복도를 따라 아이들은 목공·도예·요리 등 8개 교실로 흩어졌다.

모두가 함께 배우는 마을학교

“허니 마들렌은 냄새도 달콤해요. 조금 전 오븐에 빵을 넣었어요.”

제빵교실에 참여한 민수(대진초 5학년)는 빵 만들기가 재밌는지 연신 싱글벙글이다. 반죽기로 유기농 밀가루를 반죽한 일도 신기하고, 틀에 넣어 예쁘게 만든 빵 모양도 만족스럽단다. 데크오븐과 버터컬 믹서, 생크림 믹서기와 각종 제빵도구들도 민수에겐 즐거운 ‘구경거리’이다.

같은 시간, 또 다른 교실에서는 도예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초벌로 구운 그릇에 아이들은 자기만의 그림을 그려 넣느라 분주해 보였다. 성우(대진초 2학년)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를 그렸으며 “힘이 쎈 고질라”라고 연신 자랑이다. 이렇게 만든 그릇은 유약을 발라 교실 옆 가마실로 옮기고, 마을 선생님이 직접 구워 완성하게 된다. 물레와 성형실, 석고 캐스팅실부터 최신 가마실까지 최대 15명이 실습할 수 있도록 갖춘 점이 눈길을 끈다.

오후 2시가 되자 이번에는 지역주민들이 마을학교를 찾았다. 드릴링 머신과 CNC조각기 등을 이용해 목재 서랍을 만들고 있는 목공교실. 인근에 사는 박수현(44) 씨는 “집사람 권유로 시작했다. 목공도 배우고 동네 주민도 알 겸 해서 왔다.”며 앞으로 목공 일로 창업도 생각 중이라고 했다. 올해 은퇴한 이정배(60) 씨는 “혼자 식사를 할 일이 많은데, 요리를 배우면 좋을 것 같아 왔다.”며 “칼질이 가장 힘들다. ‘적당히’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고 웃었다.

“처음에는 마을학교에 대한 주민들 반대가 심했어요. 체육관이나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와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지요. 하지만 지금은 마을 분들이 더 좋아하세요. 학생 수가 줄어들던 옛 구도심에 모두가 함께 배우고 어울리는 공간이 생겼기 때문이죠.”

박경화 행복마을학교 담당교사의 말이다.

폐교 리모델링으로 구도심 활기

현재 행복마을학교가 들어선 곳은 옛 마산 구암중학교 건물이다. 학생 수가 1,600여 명에 이르던

이곳은 지난해 신입생이 61명으로 출자 인근 구암여중과 통·폐합되는 과정을 거쳤다.

폐교 활동을 논의하던 경남도교육청은 학생과 지역주민 모두를 위한 행복한 교육 공동체학교를 제안했고, 지금은 1, 2층에 행복마을학교를, 3층에는 예술교육 위탁과정을 운영하는 창원예술학교와 1년 위탁과정으로 운영되는 '자유학년제 고등학교'인 창원자유학교가 들어서 있다. 옛 구암중 체육관을 증축한 독서문화공간 '지혜의 바다'는 마을학교보다 며칠 앞서 문을 열고 지역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김성준 행복마을학교 교사는 "옛 구암중이 모교다. 통·폐합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구도심이 마을학교를 통해 새롭게 부활하고 있다."며 "폐교가 늘고 있는데, 이곳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개관 2년 전부터 발로 뛰며 찾아다녔다."는 마을교사는 행복마을학교의 또 다른 자랑거리다. 그 분야 기술을 지니고 실제 창업을 했던 마을주민 15명이 아이들의 '길잡이'이자 '코디네이터'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마을주민들이 마을학교에서 배워 자격증을 취득하면 보조교사로 채용해 '배움의 선순환'을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커피·음료교실에서 바리스타 3급 자격증을 준비 중인 김예지(46) 씨는 "신랑이 커피를 좋아해 배우게 됐다. 아이들도 좋아하다 보니 마을학교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에게 알려 주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진로 탐색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체험을 통해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정서적 안정감과 힐링을 느끼고 있지요. 자신을 알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이 궁극적 목표입니다." 마을 교사들의 하나된 말이다.

주말 배움터와 평일 저녁 기본·심화과정 운영

적정기술과 상상경제 교실은 행복마을학교만의 특색 있는 공간이다. 3D프린터, 레이저 커터기, 용접기 등이 갖춰진 적정기술 교실은 프로젝트형 수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곳으로 태양열 오븐을 만들거나 비주얼코딩과 사물인터넷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 상상경제 교실에서는 모의창업 활동으로 청소년 창업과 1인 창업, 마을기업 등에 대한 사회적 경제학습과 지원이 이뤄진다.

주말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해보는 토요 학생자치배움터도 열린다. 얼마 전에는 70~80명의 아이들과 청소년 대토론회를 열고, 비슷한 관심을 가진 친구들과리 그룹핑 해 여러 활동을 모색했다. 노래와 춤, 사진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도서벽지 어르신들의 영정사진 촬영과 공연을 기획했다. 이러한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 사진교육 등 각종 지원을 마을학교가 준비 중에 있다. 박경화 교사는 "앞으로는 재미난 프로젝트를 제안하려 한다. 촌놈의 서울 구경하기, 메이킹 아이들과 같이 아이들이 관심 있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주제를 통해 신청자도 받을 계획"이라고 말한다.

저녁시간을 활용한 중·고생 대상 심화과정도 여타와 차별화된 특색프로그램이다. 일회성 체험에서 벗어나 더 배우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마을학교는 평일

늦게까지 문을 열었다. 생활 프로젝트는 자신이 하고 싶은 분야를 방과 후에 한 달 단위로 배우는 기초·기본 성격의 프로젝트라면, 끈 프로젝트는 학생과 마을교사가 협력해 1인 1전문 기술을 키우는 심화형 장기프로젝트다.

현재 마을학교 체험교실은 댄스·연극, 업사이클링, 직조실, 마을방송국 등 총 10개. 20여 분 동안 아이들은 실습 도구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을 꼼꼼히 받고, 2시간 정도 한 과정을 체험한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경남지역 학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매주 2회 화, 목요일 오후 시간에 참여 가능하다.

오는 7월까지 체험 신청자 수는 6,200여 명. 올 상반기 예약이 일찌감치 마감될 정도로 지역 내 호응이 높다. 전인택 대진초 교사는 "아이들이 좋아한다. 이번에는 특별히 전교생 모두를 데리고 왔다."고 말한다. ②



- 4. 현관 앞 이정표 각 층을 나눠 쓰며 교육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 5.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는 커피·음료교실
- 6. 적정기술교실에서 코딩을 배우는 아이들
- 7. 마을주민이 배우는 목공교실



INTERVIEW “협동조합학교는 행복마을학교의 미래입니다”



박경화
행복마을학교 교사

박경화 교사는 행복마을학교 건립의 1등 공신이다. 2010년 대안학교인 태봉고 교사로 근무할 때 만든 작업장학교는 지금 행복마을학교의 모태이다. 아이들은 약 109㎡ 규모의 이곳 작업장에서 20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며 즐거운 경험을 쌓았다. 이후 교실 한 칸 한 칸을 작업장으로 만들고 싶다는 그의 소망은 몇 년 뒤 행복마을학교에서 실현됐다.

Q 행복마을학교를 설립할 때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은.

아이들은 직접 만드는 과정을 통해 몰입을 경험하고 즐거움을 느낀다. 이를 통해 스스로 즐거워하는 일을 찾고, 서로 소통하며 협력하게 된다. 협력도 재능이다. 학교에서 배워야 한다.

Q 폐교 리모델링 우수 모델로 꼽히는데.

옛 건물을 최대한 그대로 살리면 적은 예산으로도 폐교 활용이 가능하다. 작업장을 만들기 위해 구입한 실습 기기를 제외하면 디자인은 '재생'에 포인트를 뒀다. 현관은 아이들을 위한 전시관이다. 지금은 김두루 학생이 인도네시아 여행을 다녀온 후 그린 그림과 어릴 적 물건들을 모아 <잡화전>을 열었다. 다음 학생은 타투 전시회를 준비 중이다.

Q 앞으로 계획은.

협동조합학교를 만드는 일이다. 영국에는 사례가 있지만, 아직까지 경남에는 없다. 협동조합학교가 되면 학교 안 목공 동아리가 목공 회사가 되고, 제빵 동아리가 제빵 회사가 된다. 각각의 협동조합은 마을사람들과 아이들이 함께 운영해 나가는 형태다. 앞으로 행복마을학교의 중·장기적인 목표로 두고 있다.

더 빨리 더 멀리!

체육인을 꿈꾸는 고교생들이 ICT가 융합된 스키점프를 체험합니다. 지난 6월 23일 (토) 한국체육대학교에서는 교육부 주최, (사)한국체육진로교육협회가 주관한 '2018 체육중점학교 진로교육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 체육중점학교 학생 400여 명은 체육진로 특강, 대학입시 전형별 진로-진학 입시 컨설팅, IT 스포츠융합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진로를 탐색했습니다. 체육중점학교는 일반고에서 체육교과 중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학교로 올해는 28개교 53학급이 운영됐습니다. 미래 체육인의 꿈이 이곳에서 더욱 영글어갑니다.



세종 소담초 아버지회 따르릉~ 아버지 자전거 방법대가 나갑니다



아버지 자전거 방법대 회원들

따르릉~ 따르릉~
저녁 8시가 넘는 시간, 일을 끝낸 아버지들이 자전거를 타고 나타났다. ‘우리가 사는 곳은 우리가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소담초 아버지 자전거 방법대다.
이들은 격주 수요일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3인 1조가 되어 취약·우범가능 지역에서 자전거 방법 순찰을 돈다. 인근 파출소와 연합한 지킴이 활동으로 이뤄지는데, 세종 소담초 아버지회 회원 21명이 참여하고 있다.

밤 11시까지 마을 주변 돌며 순찰

직장인이다 보니 일하고 와서 늦은 시간까지 순찰을 하면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하지만 안전지킴이 순찰 활동을 하면 할수록 되레 힘이 난다는 아버지들. 지난 6월 발족한 이후 다들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한편, 순찰일지도 꼼꼼히 적고 있다.
“야밤에 아파트 정자에 삼삼오오 모여 기타치고 있던 고등학생들이 있었어요. 학생들에게 빨리 귀가하라고 하자 시

험공부로 지쳤다면 ‘한 곡만 연주하고 가면 안 되겠냐’는 아이들이 안스럽기도 했지요. 순찰 중에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만나면 최대한 친절하고 반갑게 인사하면서 일찍 집에 들어가라고 말해줍니다.”
1학년 아들을 둔 운영필 씨의 말이다. 날씨가 더운 어느 날엔 벤치에 쓰러져 계시는 한 어머니를 발견하고 괜찮으시냐고 물으니 날씨가 더워 쉬고 계시다고 했다. “다치신 줄 알고 깜짝 놀랐다.”는 그는 방법대 활동으로 마을주민을 더 생각하게 됐다고 말한다.

사실 소담초에는 아버지 자전거 방법대만 있는 게 아니다. 이들은 ‘어벤져스’로 불릴 만큼 작년부터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아이에게 아빠를, 아빠에게 아이를, 엄마에게 자유를’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연중 기획 프로그램으로 진행한 ‘애들아, 아빠랑 학교 가자’는 전국에 소개될 정도로 입소문도 툭툭히 났다. 소담초 혁신부장 유우석 선생님을 비롯해 전 선생님들이 함께한 프로젝트다.

‘자전거 타고 학교 가자’를 비롯해 원수산 산행, 1박 2일

학교 캠핑 ‘애들아 학교 가자’, 닭장 만들어 주기,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인문학 축제, 메기 잡기(겨울놀이 체험) 등 재미난 아이디어도 돋보인다. 모두 아버지들이 기획·주관한 행사들로 가지고 있는 재능을 오롯이 내 아이와 아이 친구들을 위해 기부하신 셈이다. 지난달에는 스웨덴과 대한민국 월드컵 첫 경기를 학교강당에서 함께 응원하는 행사도 진행했다. 아버지들은 응원 도구는 물론 물도 꼼꼼히 챙기며 열띤 응원전을 이끌었다. 오는 7월 14일에는 학교 운동장에서 형형색색 색깔 물총놀이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어릴 때 아빠가 했던 놀이”를 함께 하기 위해 기획한 신나는 축제다.

‘일꾼’ 자처하는 아버지들… 새로운 교육공동체 모델로

“아버지회 원동력은 낯선 곳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 인연을 만든 일이지요. 바람직한 일을 향해 함께 하고 싶다는 순수한 바람이 모였다고 봐요. 삶을 위한 도시를 만들어 가고 싶다는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아버지들이 모일 수 있었습니다.”

4학년 이준희 학생 아버지 이상욱 씨의 말이다. 현재 아버지 모임 회원은 120명. 혁신학교인 소담초의 다양한 노력과 새롭게 터를 이룬 세종 가족들의 의지가 아버지회를 든든히 뒷받침하고 있다. 이들은 학부모 동아리로 조직되어 서로 자녀 키우는 방법을 공유하고, 행복한 학교와 가정을 꾸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한다. 평소 얼굴보기도 힘들었던 아빠와 더 친해졌다는 아이들. “중학생 딸이 다니는 학교의 아버지회도 만들었다.”고 귀띔하는 한 아버지의 말처럼 소담초 아버지회에서 시작된 변화는 더 크고 더 넓게 퍼지고 있다.

아버지회는 이른 아침에 모여 학교와 마을 주변을 청소하는 환경 정화 활동도 펼친다. 지난 6월 30일 토요일 새벽, 아버지들은 졸린 눈을 비비는 아들·딸 손을 잡고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학교를 찾았다. 집게를 들고 봉투를 탁! 펼치는 모습이 이미 여러 번 해본 듯 익숙하다. ‘일꾼’이라고 쓰인 아버지회 전용(?) 모자도 턱하니 썼다.

“일꾼이죠(웃음). 언제든지 학교가 필요로 한다면 달려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우렁차게 외친다. ㉠



유우석 혁신부장 교사(뒷줄 왼쪽 세 번째)와 일꾼 모자를 쓴 소담초 아버지들과 아이들



학교 홍보 부스를 직접 운영한 아버지회



학교에서 열린 월드컵 응원전



학교 주변 환경 정화 활동

“ 글 김재윤 명예기자

마을 곳곳마다 진로 길라잡이가 된다



진로교육이 교육계 전반에서 화두로 떠올랐다. 최근 자유학기제가 도입되고 자유학년제로 확대됨에 따라 공부만 강조하던 학교도 진로교육의 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제는 어떻게 진로교육을 할 것인가가 학교

와 교사들의 관심 속에 자리 잡았다.

이런 가운데, 진로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우리마을 진로 길라잡이(JOB)이 서포터즈단(이하 서포터즈단) 발대식이 지난 6월 15일 서울 마이크임팩트 스퀘어에서 열렸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서포터즈단은 ‘우리 지역만의 특화된 진로체험을 소개한다’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진로체험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교육 우수 사례를 발굴하면서 발전적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활동을 한다. 일반적인 서포터즈나 대외활동과는 달리, 학생과 교사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서포터즈로 활동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교육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전국단위 선발 과정을 거쳐 선발된 서포터즈들은 전국에 온마을 진로교육공동체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최은옥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발대식에서 “우리 서포터즈단은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서포터즈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서포터즈들의 열정과 의지가 가득했다. 학생 서포터즈인 ‘세종시 꿈탐구단’의 일원인 조용백 학생은 “세종시 대표팀으로서 많은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이 되도록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서포터즈 활동에 대한 안내와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서포터즈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화기애애한 시간도 가졌다. 학생 서포터즈는 같은 학생들에게 지역기반 진로체험에 대해 소개하는 역할을, 성인 서포터즈는 지역에 특화된 진로체험 콘텐츠를 발굴하여 지역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멘토로 초청된 공효진 교사(세종 양지초)는 학교 진로교육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밝히면서도 “진로교육은 학생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서포터즈들은 진로교육에 대한 시선과 관점을 바꾸는 데 노력해야 한다.”라고 격려했다. 이후 기념촬영에서 서포터즈들은 저마다의 포부가 적힌 캘리그래피 족자를 들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다짐했다. 대전 지역의 학부모인 김진희 씨는 “진로를 찾아가는 출발점이 우리가 사는 마을이어야 된다.”라며 “서포터즈단이 질 높은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역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서포터즈단을 향한 바람을 밝혔다.

새로운 진로교육을 제시할 우리마을 진로 길라잡이(JOB)이 서포터즈단의 활동이 기대된다.



“ 글 나건식 명예기자

소중한 눈, ‘Eye사랑’ 안경으로 보호해요!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은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에 걸쳐, 시력 교정이 필요한 관내 초·중학생 102명을 대상으로 ‘아이(Eye)사랑’ 안경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아이(Eye)사랑’은 지난 2010년부터 영천교육지원청과 성덕대학교 안경광학과 간 업무협약을 통해, 전자기기 과다 노출 등으로 시력 관리가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으로, 시력교정 및 맞춤형 안경 지원뿐 아니라 하반기에는 참여 학교 순회 방문을 통해 사후관리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이(Eye)사랑’ 안경지원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정확한 시력 측정과 그에 맞는 안경을 지원받아 일상생활 및 학습에도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우영 교육장은 이번 아이사랑 안경지원사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시력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꾸준한 시력관리로 학업은 물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관내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성덕대학교 안경광학과 교수님과 학생들, 산학협력단에게도 깊은 감사를 전했다.



“ 글 박현숙 명예기자

광주 수소전기하우스 문 열다

물로 가는 자동차 들어보셨나요? 수소전기차 기술과 친환경 수소에너지가 만들어 갈 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광주 수소전기하우스’가 6월 22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 문을 열었다.

자동차가 만든 에너지로 사는 집을 컨셉으로 한 수소전기하우스는 세계 최초 수소전기차 양산에 성공한 현대차와 친환경 에너지 정책 확산에 앞장서는 광주광역시와 함께 만든 공간이다. 수소전기차는 수소가 공기 중의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 에너지를 얻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얻은 전기 에너지로 자동차 시동을 켜면 운행 중에는 순수한 물만 배출된다. 이때 배출되는 순수한 물은 공기 중의 미세먼지를 씻어내고 대기를 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수소전기하우스에서는 어린이 과학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수소전기자동차의 원리를 배우는 과학 체험에 참여한 한 학생은 “VR로 직접 에너지 이동 모습을 보니 신기해요. 앞으로는 물로 가는 버스타 택시도 타고 싶어요.”라며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환경보호가 시급한 시기 수소전기차가 미래사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 글 박기윤 명예기자

학교폭력 예방으로 하나 된 ‘마을교육 공동체’

경기 용인 모현중학교(교장 김영복) 소속 학생자치회는 모현초등학교와 연계하여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모현중-모현초 연계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여 학생은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이 행사는 매년 분기별로 꾸준히 실시하고 있는데, 모현초와 연계하여 100여 명의 많은 인원이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학부모회, 학부모폴리스, 부모지킴이, 안전지킴이, 모현파출소(소장 김길수), 모현 자율방범대 등 모두가 기꺼이 동참했다. 이들은 학교 앞 버스 하차장에서 현수막, 피켓 캠페인 띠 등을 두르고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행복한 모현 만들기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유관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진정한 의미의 ‘마을교육 공동체’를 실현하는 좋은 선례가 되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 활동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 글 오인선 명예기자

전 교직원 통일문화체험 연수

서울수색초등학교(교장 서영희)는 지난 6월 20일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전 교직원이 경기도 파주 일대 통일동산 카트랜드,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방문했다. 카트랜드는 카트와 서바이벌 게임, 캠핑, MT를 비롯해 파주·연천지역 테마투어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가 높다. 오두산전망대는 고구려와 백제가 각축을 벌였던 곳으로 그 정상에 있는 전망대에 오르면 한강과 임진강이 교차해서 서해로 흘러들어가는 절경과 북한 황해도의 산천과 주거, 사람들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날 통일문화체험 연수에 참석한 교직원들은 간단한 안전교육을 받은 후 신나는 키트도 즐기고 통일교육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마침 올해 약 3년 만에 8.15 광복절을 계기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금강산 면회소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한다. 이들의 오랜 바람과 염원대로 더 이상 이 땅의 비극적인 전쟁이 되풀이 되지 않고, 평화통일을 이루는데 물꼬를 트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 글 김희숙 명예기자

전통공예 재능기부로 즐거움 UP!

(사)대한민국전통기능전승자회(회장 이가락) 회원 50여 명과 영문고등학교 교사와 학생 4명은 지난 6월 21일 전남 곡성 백곡리 마을 어르신을 돕는 재능기부를 했다. 이번 활동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후원으로 마을 어르신들에게 장승, 목공예 등 전통기능을 전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전승자회 장인 회원들은 전통한지, 짚풀 등 다양한 전통공예 분야를, 영문고 학생들은 전통매듭으로 팔찌 만들기 등을 하며 어르신에게 전통기능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후된 방충망은 직접 제작하여 교체하고, 솟대와 장승은 마을 입구 공원에 세웠다. 이들은 불벌더위에도 꿀과 대패질로 나무를 깎고 다듬으면서 마을을 보호하는 수호신을 제작하는데 구슬땀을 흘렸다. 유근기 곡성군수는 봉사 현장을 방문하여 “방충망 교체로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게 되어 고맙고, 앞으로 전통문화예술 발전에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글 손대환 명예기자

‘실내 미니정원’으로 바른 인성 키운다

논산여자고등학교(교장 심재창) 미술실이 분주해졌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10명과 학교 4-H 회원 16명, 교내 인성교사 동아리 ‘인스타(人星)’ 교사 7명 등 총 33명이 실내 공기정화식물 화분 만들기에 참여한 것이다. 화분 만들기는 학급회의 때 ‘교실 분위기를 밝고 환하게 하기 위해 식물을 키우면 좋겠다.’는 학생들의 안건이 전체 대의원회에 상정되어 해결 방안을 모색하던 중, 학교 4-H회 지도교사와 인성교사 동아리의 사업 추진으로 하게 되었다. 공기정화 식물에 대하여 공부하고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공기정화에 탁월한 식물을 선정하였고 미니정원, 테라리움 및 수생식물 화분을 만들어 전체 학급에 보급하였다. 4-H회 회장인 2학년 천민경 학생은 “선생님과 함께 각 교실에 놓을 공기정화식물 미니정원을 만들다 보니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친구들의 밝은 모습이 떠올라 기쁘다.”고 하였다. 심재창 교장은 “학생들이 식물 이름과 특징, 키우는 방법을 알고 잘 관리하여 학급의 환경도 개선하고, 주변 식물에 관심을 갖는 등 식물 사랑을 통해 바른 인성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글 강호섭 명예기자

학교와 지역사회를 잇는 ‘함께 크는 마을’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6월 27일 ‘함께 크는 마을’ 학교-지역기관 관리자 간담회를 국립국제교육원에서 개최하였다. ‘함께 크는 마을’은 한 아이, 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2012년부터 만들어진 마을로 37개 학교와 28개의 지역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총 6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성남교육지원청의 ‘함께 크는 마을’은 학교와 지역기관을 잇는 교육중심 마을로 아동·청소년을 학교와 지역이 함께 바라보고 돌보는 활동과 더불어 매년 다양한 공동사업(캠페인, 아동청소년인식개선캠페인, 가족-어르신 결연 활동, 행복나눔장터, 수정이 마을을 만나다, 넘나들이 문화기획단, ‘중원마을을 부탁해’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함께 크는 마을’을 통해 방과 후 시간에 방임되었던 학생들이 마을 회의를 통해 지역아동센터에 연계되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되었으며, 중원마을의 경우 공동사업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발견한 학생은 계원예술학교에 진학하여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 글. 김미경 명예기자

통으로 아삭~ 채소·과일 먹어요!

‘통으로 아삭~ 채소·과일 먹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학교 점심식사 시간에 참외 등을 나눠주는 행사가 지난 6월 20일 광주상일중학교(교장 표남수) 급식실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식생활교육광주네트워크, 농림축산부 후원을 받아 바른 식생활 실천을 확산하고 채소·과일 섭취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한 주간 시민들에게 채소·과일을 나눠주며 바른 식생활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이 진행됐다. 채소·과일 섭취는 과도한 에너지와 염분, 지방의 섭취량을 줄일 수 있고 칼륨, 식이섬유, 항산화 비타민 등의 섭취량을 늘려 영양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이를 위해 식생활교육광주네트워크는 음식의 식감이나 맛에 대한 기호가 결정되는 유아단계부터 놀이와 체험 등의 식생활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다.



“ 글. 양지훈 명예기자

경기 교육가족의 행복 음악회

지난 6월 22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제10회 경기교육가족음악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음악적 재능을 지닌 경기도 지역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문화체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되었다. 예선에 통과한 총 10개 팀의 공연이 진행되었으며, 창작곡을 포함하여 기악합주, 가창, 관악합주, 리코더합주, 합창, 전통음악 등의 악기 연주와 노래가 울려 퍼졌다. 팀별 공연이 끝날 때마다 팀과 상관없이 모두의 응원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의 아름다운 멜로디로 행복이 울려 퍼지기를 기대한다.



“ 글. 차현숙 명예기자

부산 학부모 봉사단의 새 출발!

2018년도 부산학부모샤프론 및 프론티어봉사단 발대식이 6월 16일 오후 2시 동의과학대학교 컨벤션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교육청에서 지원하는 40대 학부모 댄스팀이 과거와 현재에 유행하는 댄스가요를 선보여 높은 호응을 끌어냈다. 발표식 하이라이트는 학교별 정한 색깔에 자신의 꿈을 비행기로 접어 날리는 ‘프론티어 꿈 발표하기’였다. 부산학부모샤프론 및 프론티어봉사단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을 배우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펼쳐나갈 계획이다.

관세청, YES FTA 전문교육 “미래 FTA 인재 키워요!”



관세청은 지난해 중소기업 및 학생(특성화고교 등) 대상으로 FTA 관련 공공증과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YES FTA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수준별, 업종별, 대상별 특성에 따라 10개 과정이 무료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총 780회, 9,300명이 교육을 수료하였다.

이 중 189개 기업이 새롭게 FTA를 활용하게 되었으며, 154개 기업이 원산지관리시스템인 ‘FTA-PASS’를 도입해 체계적인 원산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교육을 이수한 168개 기업이 신규로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취득하였고, 210명이 ‘원산지전문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교육 이후 ‘원산지전문자격증’인 원산지실무사를 취득하고, 포워딩업체로 취업까지 성공한 세인TNL의 허수빈 사원은 “학교에서 ‘FTA 실무’라는 교과목을 배우고 있었지만, 교과목에서 다루기 힘든 세밀한 부분까지 배울 수 있었다.”며 “무역 관련 자격증이 부족했던 저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 이어 “교육을 수강하면서 습득한 지식을 현재 업무에 적용시켜 일에 적응을 빨리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올해 인천세무고를 졸업하고 국제물류회사에 입사한 대선해운항공 최예은 사원은 YES FTA 전문교육으로 새롭게 진로를 찾았다. ‘미래인재양성 과정’에 참여한 그는 “FTA를 이해하기 위해 수출입통관의 전반적인 부분을 공부하다 보니 무역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다.”며 ‘원산지실무사’ 자격증과 ‘국제무역사’ 자격증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한다.

특히, 특성화고에서는 FTA 특화 분야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경우에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학생 눈높이에 맞춘 기초교육과정 운영을 높게 평가한다. 송동현 경기물류고 교사는 “무역에 관한 기초적 소양부터 FTA 실무분야 전문지식까지 수요자에게 맞춰 진행되는 것이 좋았다.”며 원산지실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정보와 상세한 기출문제 풀이까지 이뤄졌다고 말한다. 특히, FTA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는 날로 늘어날 것이라며 송 교사는 “평택항에 인접한 경기물류고는 배후 산업단지에서 2,000여 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다. 대내외적 환경을 빨리 인식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소양과 역량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행복한 교육」 웹진(<https://happyedu.moe.go.kr>)에서 명예기자들의 기사 전문과 생생한 교육이야기를 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와 시민참여단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의견에 반응해야만 한다. 따라서 정책과정에 대한 다양한 시민참여는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이다. 그러나 시민참여가 확대될수록 필연적으로 이질적인 가치와 이해관계를 지닌 행위자들 간의 갈등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아쉽게도,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최적의 유일한 정책 대안을 선택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책과정에서 갈등의 필연성을 부정할 수 없다면, 갈등을 제거하려는 노력보다는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이 서로 간에 인식 차이를 발견하고, 이를 좁혀나갈 수 있는 공론화 또는 숙의적 절차가 정책과정에 내재되어야만 할 것이다.

숙의민주주의 가치를 구현하는 장

과거 정부는 정책과정에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종 설명회, 공청회, 여론조사, 주민투표 등을 활용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수렴 기제들은 시민들의 숙의에 기반한 판단이나 결정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실제로, 대부분 사람들이 정책 이슈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또한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도 않은 채 투표장으로 향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결과, 시민의 자유롭고 이성적인 토론과 학습의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소극적인 대중들의 피상적인 태도나 의견이 여론으로 간주되는 수준에 머물러 왔다.

반면, 최근 부각되고 있는 공론화 절차들은 정책문제에 대한 이해와 학습 기반의 여론을 얻어내는 데 적합한 기제들이다. 현재까지 다양한 숙의적 절차들이 개발되었는데, 이들 절차들은 공통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정책 이슈에 대해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갖고 숙고할수록 정책 선호가 달라진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숙의 과정에서 시민들이 다양하고 충분한 정보와 의견들에 노출되도록 함으로써 정책 문제는 물론 상대방에 대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며, 그 결과 인식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7년 가을 진행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참여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에서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로의 전환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018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숙의민주주의 가치를 구현하는 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한국 공론화 모델 개발... '시민적 지성' 발휘 기회

이번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는 기본적으로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와 시나리오 워크숍(scenario workshop)이 결합된 형태로써, 국내 상황에 적합한 공론화 모델이 개발, 적용되는 최초의 사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는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다시금 일깨움은 물론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다. 지난 5월 말 국가교육회의에서 공론화 범위를 한정하였고, 공론화위원회는 6월 16-17일 이틀간 이해관계자, 학부모, 학생, 교원, 대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의 비전을 수립하고,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서로 다른 비전과 대안을 담은 4개의 고유한 대입제도 개편 시나리오들이 만들어졌다. 7월 중순(1차 숙의: 14~15일)과 하순(2차 숙의, 27~29일 예정)에는 400명이 넘는 시민참여단이 2차례에 걸쳐 이들 시나리오들을 의제로 하여 학습과 토론의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과학적인 확률표본 추출을 통해 국민들의 축소판인 시민참여단이 대표성 있게 구성되고, 이들 시민참여단이 대입 개편 시나리오들에 대해 정교하게 균형 잡힌 정보와 자료를 기반으로 토론과 학습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대입개편 시나리오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미래세대 토론회, TV 토론회, 국민대토론회 등이 동시에 진행된다. 이들 토론회 자료들은 시민참여단에게 전달되어 숙의 자료로도 활용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료검증단을 활용해 정보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검증하는 절차도 진행된다. 이와 함께, 시민참여단은 숙의 과정에서 시나리오별 전문가들과 함께 충분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짐으로써 보다 심층적인 토론이 가능하게 된다. 2차례에 걸친 공론화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나면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하여, 숙의의 결과로 어떤 의견 변화가 발생되었는가를 조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공론화위원회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는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다시금 일깨움은 물론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번 공론화는 다양한 시민들이 국민을 대표해 토론을 통해 서로에게 진실로 귀 기울이고, 상대방과의 차이를 단순히 '맞춰주기' 보다는 '이해'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가 또 한 번 우리 사회의 '시민적 지성'을 발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㉞



심준섭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
중앙대학교 교수

필자는 중앙대학교 행정학 학사와 고려대학교 행정학 석사, 뉴욕 주립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정부 부처 및 지자체 위원으로 활동하며,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상곤의 다섯 번째 교육편지

4차 산업혁명과 오래된 교육의 미래

이제 장마도 지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과 아이들 모두 쉴 틈 없이 일과 공부하느라 애 쓰셨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휴가를 통해 엄마 아빠는 고 단했던 일로부터 잠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아이들은 세상은 상상력과 모험심을 무한하게 발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행복한 교육 독자 여러분!

이번호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미래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몇 년 전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에서 알파고가 승리한 이후,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 빠르게 퍼져 나갔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독일의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교수가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처음 사용하면서 유명해진 개념입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변화를 쓰나미와 같다고 표현하였습니다. 독일의 슈밥은 18세기 증기기관의 발명과 함께 시작된 산업변화를 1차 산업혁명,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까지 진행된 전기 및 내연기관에 입각한 대량생산 체제의 성립을 2차 산업혁명, 그리고 20세기 중후반 도입되기 시작한 컴퓨터 및 정보 통신 기술에 따른 산업변화를 3차 산업혁명이라 부르면서, 인공 지능과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4차 산업혁명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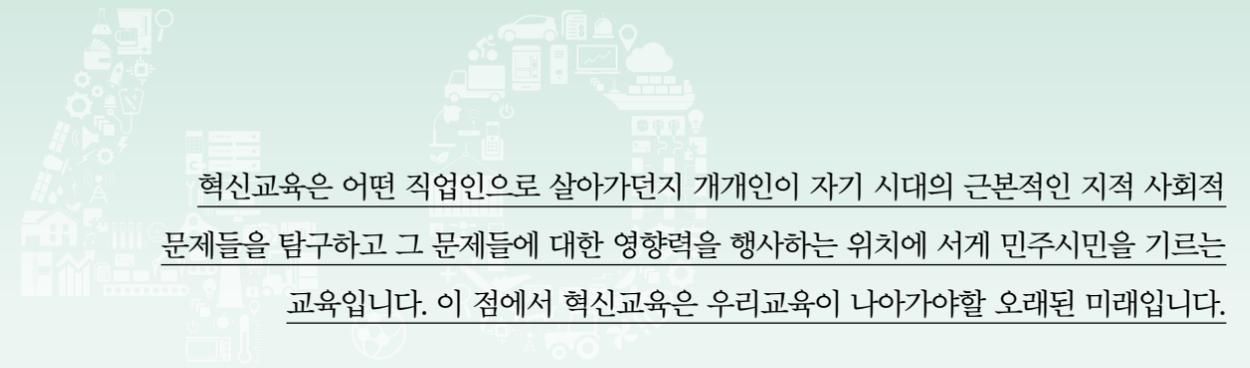
물론 지금 진행되는 기술의 진보가 또 다른 산업혁명이라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슈밥 교수가 말했던, “인공지능, 로봇, 사물 인터넷, 자율 주행차, 3D 프린팅, 나노 기술, 바이오 기술,

드론 등은 빠르게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물리적 세계와 사이버 세계를 하나로 융합시키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노동과 교육 자체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우리교육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하는 미래교육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물리적인 학교의 벽도 사라질 것이고 학생들은 어디에서든 자유롭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교육의 방법도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서 자료를 종합하고 판단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 유연한 교육체제를 만들고, 종합적이고 실행 역량을 기르는 방향으로 교육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정, 탐구중심의 교과서 개발과 함께 고교학점제 실시, 자유학기제 확대, 입시체제 개편,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교육 등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방법과 교육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개혁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래사회의 교육에 대해 고민하면서 우리는 여기서도 뒤쳐질 수 없다는 태도로 ‘속도에 쫓기는 강박증’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글로벌 경쟁 시대에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조금 늦게 가더라도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사회에서 이루어지며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는 공교육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



혁신교육은 어떤 직업인으로 살아가던지 개개인이 자기 시대의 근본적인 지적 사회적 문제들을 탐구하고 그 문제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서게 민주시민을 기르는 교육입니다. 이 점에서 혁신교육은 우리교육이 나아가야할 오래된 미래입니다.

이기 때문입니다. 공교육이 그 사회의 체제를 유지하고 재 생산하는 기본 토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 교육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대로 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교육과 관련한 논의가 속도에 쫓기게 되면 몇 가지 우려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선 기존의 ICT 활용교육, 3D 프린터 활용 수업과 같이 미래교육의 문제를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미래교육을 접근하면, ‘코딩교육을 해야 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해야 한다’ 등만을 강조하게 됩니다.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혁신이 아니라, 현재의 낡은 공교육 시스템을 그대로 두면서 발 빠르게 기술교육을 하는 것에 머물러 있게 되고, 학생들은 굴뚝경제 체제에 기반을 둔 교육을 반복하게 됩니다. 얼마나 빠르게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 경쟁자를 제치고 목표에 도달하는 교육이 더 견고해 지는 것이죠.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조적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대부분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식으로 미래교육을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미래를 불안과 공포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학생들은 불안한 미래에 살아남기 위해 더 치열하게 경쟁하게 되고 협력과 창조적 사고를 기르는 교육은 요원해 집니다. 결국 기계는 인공지능과 연결되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인문학적 상상력을 갖추면서 인간을 닮아가는 시대에 우리는 학생들에게 반복 작업을 하는 기계가 되는 교육을 하게 됩니다.

행복한 교육 독자 여러분!

이탈리아에는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빨리 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속담을 되새기면서 우리교육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학생들을 시험문제를 푸는 기계로 만들고, 암기식 교육, 문제풀이식 학습을 하면서, 학생들이 삶과 삶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반성 속에 시작한 것이 혁신학교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미래교육에 대한 고민도 이러한 혁신교육에 대한 고민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분명 기술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러나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기술이 폭주하는 시대일수록, 기술을 제어하는 인간의 지적 능력은 더 절실해 집니다. 그래서 온갖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지식의 홍수 시대에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생각하며 현명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입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미래교육은 새로운 산업구조에 잘 적응하는 교육, 질 높은 미래 노동자를 기르는 교육을 넘어서서 학생 모두가 “세상에 하나 뿐인” 자율적인 주체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제로 향유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교육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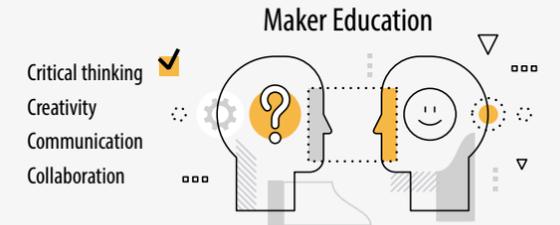
행복한 교육 독자 여러분!

혁신교육은 어떤 직업인으로 살아가던지 개개인이 자기 시대의 근본적인 지적 사회적 문제들을 탐구하고 그 문제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서게 민주시민을 기르는 교육입니다. 이 점에서 혁신교육은 우리교육이 나아가야할 오래된 미래입니다. ㉔

모든아이
우리아이
8화
혁신학교



혁신의 시대 메이커 운동과 메이커 교육



최근 경제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우려들이 연일 언론을 장식한다. 특히 ‘일자리’와 관련한 지표에는 이미 빨간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 6월 15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이 10.5%에 달하고, 체감실업률은 23.2%를 기록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혁신성장을 한축으로 내세운 정부는 바로 청년기업에 청년창업 펀드 6천억 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기술기반 창업자에게는 최대 1억 원까지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도 지원한다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많은 이들에게 창업은 어렵고 두렵다. 더욱이 기술창업은 원천기술도 기업가정신 문화도 취약한 우리 국민에게는 해당 사항 없는 남의 일인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다보니 비슷한 기간, 통계청의 청소년의 선호직업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

자 대다수가 국가기관(25%), 공기업(18.2%), 대기업(16.1%)을 희망한 반면, 벤처 기업 근무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3.3%에 불과했다. 이러한 정책과 현실의 괴리 기저에는 국민들의 혁신 역량 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화가 있고 본다. 결국 우리의 교육이 창의성과 도전정신, 즉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획기적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함을 시사한다.

학생 주도의 능동적 교육과정 ‘메이커 교육’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으로 상징되어지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세상의 모든 경계는 연결을 통해 허물어지고, 인류 고유의 영역인 창의적 성취마저도 데이터의 연결과 기계학습으로 인간과 기계 기여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많아지면 달라진다’는 클레이 셔키의 말처럼 복잡하게 연결되어 무수히 많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 세상의 변화는 단선적 사고를 하는 이들의 상상을 이미 넘어서 버렸다. 그렇다고 우리가 양과 속도로 기계와 경쟁할 수는 없는 일,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를 만났을 때는 일단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감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 따라서 한 가지를 하더라도 스스로에게 유의미한 일(학습도 마찬가지이다)로 만드는 것이 첫째이고, 유연한 사고로 변화(첨단문명)를 적극 활용하고 자신의 생각을 실제 세계에 빠르게 구현해보는 도전적 자세를 가지는 것, 나아가 자신이 추구하는 바가 다른 이들의 공감을 얻어 공동의 선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가치 창출활동이 개개인의 발전은 물론, 공동체의 지속적인 번

영을 위해서도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메이커 운동은 활동가들(혹은 창작자, 혁신가, 학습자)이 자신과 주변의 필요(needs)와 불편함을 스스로 해결하고, 보다 나은 가치로 발전시켜가는 과정을 함께 즐기고 공유하는 공동의 혁신 활동이다. 혁신은 지속적인 학습과 협력을 수반한다. 따라서 메이커 활동은 참여(engagement) 과정 자체가 무형식(non-formal), 비형식(informal)의 교육이다.

한편 메이커 활동이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교육의 대명사로 떠오르는 이유는 참여자(학생)가 자기주도적으로 커리큘럼으로 구성하고 학습의 과정에서도 가치 창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교육은 학교에서 배웠던 것을 다 잊어버린 후에도 남는 것”이란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그 지식들을 유의미한 자신의 경험으로 연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역량이 중요한 것이다.

메이커 교육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학생 주도적으로 능동적인 교육과정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점, 그 과정 중 창조적인 문제 해결과 다른 사람들과의 공동 작업에 익숙해진다는 점,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실패하고 계속 시도하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만든다는 점 등이다. 이것이 미국 등 선진국들의 메이커무브먼트가 창업자 운동으로 진화하는 이유이다.

융합교육(STEAM)과 메이커 교육

전 세계적으로 정책 입안자들이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분야를 주목하고 STEAM 교육 및 메이커(Maker) 교육을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

자리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2015년 현재, STEM 관련 일자리는 8백 6십만 개 정도가 있고, 컴퓨터 관련 직업이 이중 45%를 차지한다고 한다. 최근 딜로이트와 제조연구소(Manufacturing Institute)의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제조업 분야에서는 2025년까지 3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나, 적절한 기술 부족으로 200만 명에 달하는 일자리가 인력난에 시달릴 수 있다고 전망한다.

따라서 미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들은 과학기술 경쟁력을 가진 인재 양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 하나로 연결된 글로벌 경제에서는 플랫폼(Platform)을 장악한 소수의 사람들이 전 세계의 부를 거머쥐는 초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창의성과 혁신역량을 가진 핵심 인재를 키워내지 못할 경우, 각 국가들은 생존경쟁에서 집단으로 도태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심각히 느끼고 있다.

이에 전 세계 교육 현장에는 과학기술에 대한 호기심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소양을 키우면서 실생활에서의 문제해결력을 높일 수 있는 STEAM 교육의 붐이 일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여기에 첨단기술(3D프린터와 코딩)과 기업가정신을 보다 강력히 결합시키고 학교 밖 인적(메이커들) 물적 자원(메이커 스페이스와 오픈 소스, 크라우드 펀딩 등)들을 적극 활용하며 놀이와 학습, 일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 것이 메이커 운동, 메이커 교육이다.

사이버와 물리 세계가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교육 역시 형식과 비형식,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넘어서는 패러다임 전환이 긴요한 때이다. 이미 무크(MOOC)의 확산으로 지식 습득은 온라인으로도 충분해졌다. 오프라인

메이커교육이 갖는 가장 큰 의의는 학생 주도적으로 능동적인 교육과정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점, 그 과정 중 창조적인 문제 해결과 다른 사람들과의 공동 작업에 익숙해진다는 점,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실패하고 계속 시도하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만든다는 점 등이다.

에서의 학습은 메이커 스페이스와 같은 활동 중심 공간에서 프로젝트 기반의 협동과제를 팀을 이뤄 다양한 실습과 탐험을 해가며 진행하는 것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융합형의 경계 없는 교육 방식이 이 시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역량, 4C(Critical thinking, Creativity, Communication, Collaboration)를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방법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메이커 스페이스와 메이커 문화

메이커 스페이스는 사람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창조적인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함께 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도구(3D프린터, 레이저커파, 밀링머신, 각종 공구들)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배우며 네트워크 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메이커 스페이스는 무형식의 자유로운 공간이다. 창의성이 중요한 시대의 학습은 재미와 몰입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학습이 진행되는 공간 결코 한가지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활동하는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열린 장소가 된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메이커 스페이스는 많은 이들이 격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곳, 다양한 문화가 섞이고 시너지를 내는 개방과 협력 공간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런 이유로 시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도서관, 박물관, 대학가, 그리고 (방과후)학교에서 앞 다투어 메이커 스페이스를 만들고 있다.

메이커 문화는 공유의 문화이다. 지식과 기술을 상호 배우고 자신만의 노하우를 오픈소스로 공개한다. 메이커 문화는 도전과 혁신의 문화이다. MIT의 비트와 원자 연구소(BIT

& Atoms Fab Lab) 프로그램에서 출발한 팹랩(FabLab)은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모든 시도를 가능하게 해주는 제작 실험실이다. 전 세계 약 1,000여 개의 연구소에서 78개국 이상의 나라에 거주하는 전 연령층의 실험가, 전문가, 창업자들이 활발한 네트워크를 하며 다양한 실험과 발명, 새로운 도전들을 하고 있다. 이 모든 혁신의 결과물들은 공유되며 팹랩 아카데미를 통해 교육하고, 참여한 교육생 및 활동가들은 다시 관심있는 서로의 프로젝트에 참여해 협력한다.

따라서 메이커 방식의 학습은 연령과 과목과 고정된 역할의 교사를 초월한다. 프로젝트에 따라 함께하는 동료가 달라지고,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교환되며, 교사는 고정된 한 사람이 아니라 선경험자인 동료와 멘토들이다. 메이커들은 자신의 창작물을 오픈 플랫폼에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혁신을 촉진한다.

이제 우리의 교육도 획일적으로 고정된 틀을 과감히 깨고 스스로의 참여와 적극적인 도전, 경험의 상호 공유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하는 혁신과 기회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1호 안건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본격 논의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1호 안건으로 선정된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시민정책참여단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학생부를 교사가 관찰 가능한 학교 정규교육과정 중심의 기록하여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생의 스펙 쌓기 및 외부활동 등 학부모의 개입이나 사교육이 유발되는 항목을 제외하는 한편, 교사의 학생부 기재역량 제고 및 업무부담 경감, 학생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책무성을 높여 생기부의 신뢰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수립의 첫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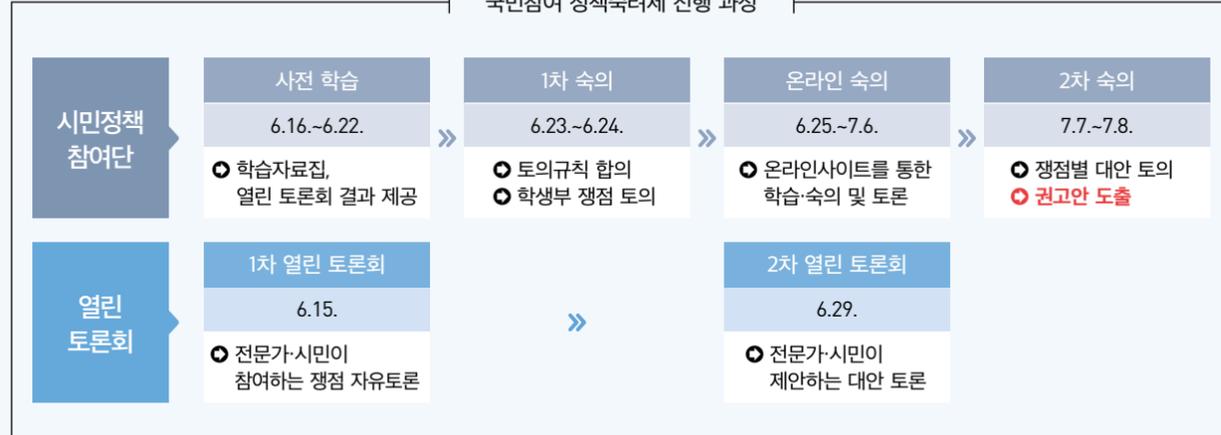
교육정책에 처음 도입되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란 정책수립 과정에 국민의 직접 참여를 제도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추진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예견, 예방하여 국민의 정책 수용도를 높이며 정책결정과정에 충분한 시간을 두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때

로는 일반국민과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함께 모여 학습과 토론을 통해 정책 대안을 공동 모색하는 제도이다.

교육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도입을 선언한 이후, 지난 3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기본 운영 계획 수립과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1호 안건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선정하였다.

이해당사자 및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학생(중3-고2), 초·중등 학부모, 초·중등 교원, 대학 관계자,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100명의 시민정책참여단은 2차례의 상호학습과 대면 토론 등의 숙의를 거치고 온라인을 통해 학습과 토론을 실시하는 온라인 숙의를 진행한다. 교육부는 시민정책참여단의 원활한 학습과 토론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부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입장 등 사전지식을 제공하는 한편, 2차례의 열린 토론회와 '온-교육'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을 정리하여 시민정책참여단에게 제공한다.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진행 과정



교육부,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시안)



이에 앞서 교육부는 17개 교육청별로 현장·서류점검을 통해 고등학교 학생부를 일괄 점검하고 현장교원, 학부모, 교육청 담당자, 대학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시안)을 마련하였다.

교육부의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시안)에 따르면, 기재 항목 및 요소를 정비하여 정규교육과정 중심의 학교생활기록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적사항과 학적사항을 '인적·학적사항'으로 통합하고, 기존 인적사항의 학부모 정보는 삭제한다. 사교육 유발과 학생 간 과도한 경쟁을 일으키는 '수상경력' 항목은 삭제한다. 그동안 학교 간의 개최 대회 수의 격차 문제를 비롯하여 대회명 변경 등을 통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편법적으로 기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대회 관련 사항은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학생의 진로희망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영역에 기재하되, 대입 활동 자료로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학생부 내 스펙 쌓기 및 사교육 유발 기재요소를 정

비하며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재를 대폭 간소화한다. 먼저 '교과학습발달상황'은 교과담당 교사가 정규교육과정에 따른 수업 중 관찰한 교과교육 관련 활동만 기록한다. 과도한 스펙 쌓기라는 지적을 받아온 자율동아리활동은 학생부 기재를 금지하고 정규교육과정 내 편성된 동아리활동만 기재한다. 학생 부담 및 사교육을 유발하는 '소논문 활동'은 기록하지 않되,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지도한 경우에 한해 '교과 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한다. 교사의 관찰이 어렵고 학생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학교 밖 청소년단체 활동은 기록하지 않는다.

학생부 서술식 기재영역도 정비한다. 학생참여 중심의 교실수업을 개선하고 수업-평가-기록의 연계 강화를 위해 교과담당 교사는 지도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재한다. 교사의 기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특기사항' 및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입력 가능 글자 수를 4,400자에서 2,200자로 축소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부의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시안)을 토대로 현장교원, 전문가, 시민단체, 학부모 등은 2차례에 걸쳐 열린 토론회를 하였으며 이날 촬영된 영상과 자료는 시민정책참여단에게 자료로 제공하였다.

시민정책참여단은 사전 학습, 1차 숙의, 온라인 숙의, 2차 숙의를 거치는 동안 충분한 소통을 통해 최종 권고안을 도출하여 향후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②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말·말·말



- 수상기록 폐지는 학종을 유명무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활동 기록이 과도하게 증가했다.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실질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생기부가 간소화 되어야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가정의 경제적 여건, 사교육의 도움에 의해 좌우되는 결과물은 삭제해야 한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특정 학생에게 수상경력을 몰아주기 위해 학교 내 대회를 과다하게 개최한다. 사교육을 심각하게 유발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정말 많은 부담을 느낀다.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 학종이 도입되면서 고교에서는 과열경쟁으로 인해 부풀리기, 사교육 개입,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비교과 영역을 대폭 삭제해야 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생기부는 학생의 학교생활을 올바르게 적는 것이지 대학입시를 위해 기록하는 것이 아니다. 정규교육과정 속에서 이뤄진 것만 기록해야 한다.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 정규교육과정에 교과 영역이 90%, 비교과 영역이 10%를 차지한다. 수업시간에 있었던 것을 기록하자. 전국진학지도협의회
- 학교생활기록으로 보기 어려운 불공정하고 비교육적인 요소를 차단해야 한다. 사교육을 유발하는 1순위가 '수상경력'이다. 그리고 개인봉사활동실적은 부모의 인맥에 따른 격차가 크다. 실천교육교사모임
- 자율활동은 학생, 학부모의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 참가 내용의 사실 기록으로 제한시키고 평가는 학생의 '자기소개서' 등으로 판단하게 하자. 한국공립고등학교장회
- 주관적 평가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학생부는 작성에 주도적 책임이 있는 교사들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기르고 최대한 외부의 간섭이 배제되어야 한다.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
- 생기부에 동아리활동이 기재되다보니 선생님들이 입시에 도움이 될 만한 동아리에 들어가라고 강요한다. 책도 대학에서 봤을 때 '좋게' 보일지 고민하고 고른다.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 기록에 맞춰 생활한다. 이게 현실이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학교에서 상위권 학생에게만 기회를 주기 때문에 온갖 편법이 동원된다. 집에서 만들어오는 과학UCC가 오로지 아이들의 실력이라고 믿는가? 학부모
- 정작 하루를 어떻게 보냈느냐가 중요하데, 하루를 마치고 일기에만 신경 쓰는 게 아쉽다. 중등교원
- 소논문이 가장 큰 문제다. 사교육에 위탁하는 경우가 흔하다. 시민에 소논문 활동으로 교육과정 상의 과제탐구를 남겨 놓았는데, 1,800명이 넘는 일반고에서는 소논문 개설 자체가 어렵다. 학부모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교실, 구름학교



봄엔 햇살 속에 발을 구름 ♪
여름엔 파도 속에 구름 ♪ 가을엔 숲 속에 구름 ♪
겨울엔 눈 속에 구름 ♪ 다함께 행복 속에 구름 학교 ♪

교사란 학생들을 지적으로 해방시키는 자이다. 교육은 모름지기 한 인간의 변화와 성장을 돕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학교가 교육기관으로 존재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현재의 학교는 획일적 가르침과 절대적 규범성 속에 개개인의 존재가 매몰되고 있으며, 교사와 학생 모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스스로 살아갈 힘을 기르는데 어

려움을 겪고 있다. 구름학교(1천여 명의 초·중·고 교사들이 활동하는 비영리교육단체)는 우리의 교실이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즉 교사와 학생이라는 경계를 허물고, 존재와 존재가 그 모습이 그대로 만나 개개인의 독자성을 회복하고 스스로의 존재를 긍정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름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서로 '수업친

구선생님'이라고 부른다. 수업친구선생님은 경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교실의 변화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서로를 돕는 관계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구름학교의 수업친구선생님들은 교실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방법을 깨닫고, 즐겁게 배우고, 실물을 접하고, 협업하며,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창조하고, 발표하고, 과정을 즐기며, 정답만을 쫓지 않고, 사회와 연계하여' 살아가



마을아빠와 함께하는 숲길체험



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수업과 평가를 디자인하고 있다. 구름학교 수업친구선생님들은 교사로서의 삶이 오롯이 존재하는 교실에서 각자의 몫을 다하기 위해 매일 공부하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난다. 그 누구의 인정이나 필요가 아니라 스스로의 욕구에 의해 움직이고,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에너지는 온전히 아이들에게 전해져 교실 속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 구름학교는 누군가가 준비해 둔 길을 가지 않는다. 비록 그 길이 울퉁불퉁한 산길같이 험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존재의 몫을 보다 분명하게 실천할 수 있는 길이라면 고독하지만 힘차게 나아간다. 구름학교는 2015년부터 매년 교실축제를 개최하여 한 교사의 변화와 성장이 진정한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으며, 2017년 가을에는 미국 교육계의 전설인 레이프 에스퀴스 선생님 강연과 대담을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여 교사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한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이외에도 미국 비영리교육단체 BIE (Buck Institute for Education)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PBL(Project Based Learning)의 국내 확산과 학교 현장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PBL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사로서의 삶과 교실 변화를 돕는 교실 연구소, 교과와 게이미피케이션의 접목을 연구하는 게임창작센터, 학교 안팎 청소년의 주체적인 삶을 돕기 위한 청세미 등을 운영하고 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5월부터 6월 23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4-5학년 자녀와 아빠(아버지, 마을아빠)로 구성된 150가족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18년 마을아빠와 함께하는 숲길체험'을 6회에 걸쳐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충남교육청이 아버지와 자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아버지의 교육 참여를 내 가족만이 아닌 사회적 가족으로 확장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마을아빠'란 이웃 또는 마을 아이를 아빠의 마음으로 내 자식처럼 지원하는 성인이라는 개념으로 충남교육청의 신조어다. 첫 행사에는 25가족이 참여하여 천경석 향토사학자의 '돌담장이 어우러진 아산 설화산 외암리 마을 자락길이야기'를 시작으로 5월 26일엔 나연옥 서천군문화관광해설사의 안내로 부드러운 산을 바라보며 천년 솔바람길이 시작되는 문헌서원을 돌았다. 이후 △ 6월 2일 계룡 사계 솔바람길, 홍성 거북이마을 솔바람길 △ 6월 9일 부소산 사비길 △ 6월 23일 삼시도 돌레길 등 충남의 대표적인 길을 그 지역의 대표 안내자와 함께 체험했다. 아버지의 학교 참여는 아버지라는 전통적인 개념만이 아니라, 사회적 부모로서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충남교육청은 학부모가 교육의 건강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그림책 속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전동초등학교(교장 정난영)는 6월 19일 전동초 강당에서 전동초 전교생과 전의초, 소정초 1학년, 유치원생 등 총 180여 명을 대상으로 「그림책 음악 여행」을 실시했다. 「그림책 음악 여

행」은 한국교원대학교 고영신 교수 팀이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학생들을 찾아다니며 색다른 문화 예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동초는 전동면(면장 주성만)의 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을 받아 이번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됐다.

학생들에게 친숙한 동화에 피아노, 색소폰, 바이올린, 타악기 등을 접목시켜 구연동화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그림책 음악 여행에서는 『시리 동동 거미 동동』, 『동강의 아이들』, 『엄마가 화났다』, 『방귀머리』 등 다양한 동화가 소개됐다. 평면적인 동화책에서 느끼는 것과는 달리 오감을 자극하여 다양한 느낌을 경험하게 해주는 그림책 음악 여행은 학생들이 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책과 더 친해지는 기회를 제공했다.



무인도에서 놀다 물이 차올라 섬에 갇혔다면...



육지와 섬이 연결되는 무인도에 들어가 놀다 물이 차올라 섬에 갇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옥룡초등학교(교장 정종희) 4학년 학생들 15명은 지난 5월 1박 2일간 무인도(여수 북개도)에서 살아남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프로젝트를 위해 학생들은 집짓기를 위한 설계와 매듭법 익히기, 돋보기를 활용한 불 피우기 등 생존기술을 배웠다. 또 「15소년 표류기」를 읽고 토론하기,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위한 규칙 정하기 등 도전활동을 차근차근 준비했다.

물때(섬과 육지가 연결되는 시간)에 맞춰 북개도에 들어간 학생들은 모둠별로 무인도를 탐사하며 이름붙이기, 돋보기를 이용

해 불 피우고 식사준비하기, 대나무와 비닐을 이용한 집짓기 등의 활동을 실시했다. 또 갯벌체험과 조난 구호신호 만들어 'SOS'를 함께 외치는 활동을 했으며, 모닥불을 피워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모닥불 나눔 시간에는 배가 난파되어 무인도에 표류한 상황을 가정해 소중한 사람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를 이야기하며 눈물짓기도 했다.

다음날 학생들은 바닷가에서 돌계를 채취하는 등 스스로 식량을 구해 식사를 준비했다. 이어 섬에서 탈출하기 위한 암벽타기와 뗏목타고 탈출하기 체험도 진행했다.

학생들은 이번 도전활동에서 여러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봄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신뢰감과 성취감을 느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학생은 “불 피우기나 식사 준비가 책으로 읽었을 때는 쉽고 재밌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실재는 너무 힘들었다.”며 “평소 당연하게 생각했던 잠자리, 불, 부모님의 도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학교로 간 학부모들, 교육기부로 하나되다

‘봄시내 마을선생님’이 후평초등학교를 찾아 전교생과 놀이마당을 펼친다. 비석치기, 실뜨기, 딱지치기 등 전래놀이를 하며 신나게 아이들과 노는 학부모들. ‘봄시내 마을선생님’은 춘천교육지원청 학부모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학부모 교육지원단으로,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와 마을도서관 등에서도 교육기부를 한다.



원주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꿈을 실어나르는 토론(꿈토)은 독서토론을 주제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을 진행한다. 10명의 학부모들이 ‘행복한 학부모를 위한 유쾌한 수다’를 위해 지금까지 관내 11개 학교를 돌아다니며 열린 강의를 펼쳤다.

‘봄시내 마을선생님’이나 ‘꿈토’처럼 학교나 지역에서 교육기

부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학부모 교육지원단’은 강원도 18개 교육지원청 학부모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중요한 사업 중 하나. 크게 놀이와 독서·토론교육, 기자단으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으며 기본연수와 심화연수, 인턴십 과정을 거쳐 양성된다. 지금까지 양성된 학부모 수만 모두 502명.

강원도교육청 권명실 소통협력담당은 “학부모들에게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교육기부를 통해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교육지원단은 큰 의미를 갖는다.”며 “학부모들이 스스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얘기했다.



부상으로 접은 야구선수 꿈, ‘야구장 가는 날’에 부활

2년 넘게 야구부 생활을 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습을 했다. 연습 중 부상을 당했고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다. 훈련을 포기하고 일반 학교로 전학을 왔다. 여전히 야구는 좋아한다. 마운드를 밟을 수 없다.



지난 6월 21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KIA타이거즈 대 NCD다이노스전에서 시구를 하는 광천초등학교 5학년 정재현 학생의 이야기다. 이날 학생과 교직원 7,700명은 2018 광주교육가족의 날 ‘희망스쿨데이-야구장가는날’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의 주인공은 우리 학생들이었다. 진체초등학교 4년 학생들이 준비한 선수 응원가 시범을 시작으로, 광주시산초등학교 도움반 학생들이 한 소절씩 불러보는 애국가가 경기장에 울려 퍼졌다. 야구선수의 꿈이 부상으로

로 좌절됐지만 마운드에 꼭 서보고 싶었다는 광주광천초등학교 5년 정재현 학생이 시구를 하고 희망교실 멘티로 참여하며 담임선생님과 함께 야구장을 찾아온 광주남초등학교 5년 김수영 학생이 시타를 했다. 야구장을 찾은 많은 광주 지역 초·중·고·특수학교 학생들은 응원으로 하나 되고 송원여상 치어리딩 동아리는 응원 공연을 선보였다.

‘야구장 가는 날’ 행사는 시교육청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희망교실 및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연례행사로 진행되고 있다. NH농협중앙회 광주영업본부(본부장 김귀남)가 입장권과 응원용품을 후원했다. ②

줄어드는 학생 수 통폐합이 대안일까?

서울 도심 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종로구 지역은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통틀어 학군이 가장 좋은 지역으로 유명하다. 그런데 이곳 학생들이 시 외곽의 주거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출산율이 급감함에 따라 이 지역 초등학교들은 신입생 모집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의 초등학교인 서울 교동초등학교와 재동초등학교가 통폐합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도심 공동화로 신입생과 재학생 수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서울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대전지역 곳곳에서는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과 함께 학교 신설요구가 잇따르면서 대전시교육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새로 학교를 세우려면 소규모 학교부터 통폐합하라.”는 교육부 정책이 그대로 적용되려면 최소한 소규모 학교 3~4개가 통폐합되어야 학교 신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상남도 내 초·중·고교 65곳도 통폐합될 예정이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남도교육청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기능을 상실한 학교에 대해 통폐합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해당 학교 학부모나 학생들은 물론 동창회 차원에서 극심한 반발도 예상된다.

‘학생 수 감소’가 교육에 미칠 영향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교원 적체 현상이 지속되자 교사를 꿈꿔온 교대와 사범대 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1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임용 대기자들이 생겨나는가 하면 지방에서는 학생 정원 미달로 폐교하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2018)가 집계한 ‘공립 초·중등 교원 임용 대기자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7년, 2018년 임용시험에 합격했지만 아직 발령을 기다리고 있는 임용 대기자는 전국적으로 총 3,425명에 달한다고 한다.

학생 수가 감소하게 되면,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정 지역이나 특정 학교에서 일시에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신도시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학교에서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듯 학생 수가 감소하면 교육재정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는 경제계를 중심으로 나오는 견해로 교육재정수입은 내국세의 증가에 따라 자연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법정 교부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의 감소는 선형적 비례 관계를 띠지 않으며, 오히려 신흥 도시(예: 세종특별자치시)의 학생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으로써 추가적인 교육재정 소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 수 감소를 교육의 질적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고, 교육혁신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자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을 경제학적 관점만이 아닌

생태학적·사회학적 관점에서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즉 지역 사회의 기반 시설인 농·산·어촌의 학교들을

유지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는 논의도 있다. 이는 학령인구의 변화가 미래 교육의 여건과 질을 개선하는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기에 필요한 ‘개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아 오히려 희망적이라는 것이다.

학교 통폐합이 최선인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최선인가? 이는 쉽게 답할 수 있는 성질의 질문이 아니다. 학생이 1명만 있어도 학교는 학교여야 하고, 이런 관점에서 어떤 규모가 적정한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와 동시에 학생과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에 학교가 매우 중요한 장소임에도 교육 당국은 이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자문해보아야 할 것이다.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무조건 교사와 학교를 줄이기보다 변화된 생태계에서 경쟁할 수 있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갖춘 미래 인재를 길러낼 교육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생태학적·사회학적 관점에서 접근

저출산 극복이 오래 전부터 국가 과제로 강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환경에서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교육 혁신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학생 수 감소와 학교 통폐합 문제는 교육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마을 공동체 복원과 함께 고민하면 좋을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시민 단체 등이 협력하여 지역 출신 청년들이 그 지역에 정착하도록 돕는 정책과 타 지역에 나가 있는 청년들을 돌아오게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학년군을 넘나드는 교원자격제가 필요하다. 학생 수용 편의의 학제는 학생 수가 많으면 적은 수의 학년을 묶고 적으면 더 많은 수의 학년을 묶어 적정규모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현 교사자격제도는 유·초 간, 초·중등 간 협조를 못하게 하고, 단절을 초래해도 속수무책인 면이 있다. 그러므로 해당 학년군을 전문화된 교원과 학년군 혹은 학교급을 넘나들 수 있는 교원으로 중복되게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을 경제학적 관점만이 아닌 생태학적·사회학적 관점에서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즉 지역 사회의 기반 시설인 농·산·어촌의 학교들을 유지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한 지역에 학교 한 곳이 폐교되는 것은 그 지역의 정주 여건을 악화시키고 인구감소를 가속화시켜 지역을 황폐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교육은 복지가 아니라 권리이다

필자의 첫 학교 이야기다. 학급 당 42~45명, 40학급이나 되는 오랜 전통의 남자 중학교였다. 그런데 최근 학생 수가 계속 줄었고, 인근 여자 중학교와 통폐합을 해 남녀 공학이 되었다. 대도시 중등학교도 학교 통폐합을 피할 수 없었던 탓이다.

2010년 328만여 명이던 학생 수가 2016년에는 277만 명으로 불과 6년 만에 16%가 감소하였다. 올해 함께 출산율이 1.0명 밑으로 예견된 상황이라 학생 수는 계속 감소할 것이다. 이대로 가다간 당장 교원 수 감소로 이어지고, 교·사대 후배들이 실업자가 된다. 현재도 학급 수 감소에 따라 금지되어 있는 상치 교과수업(자격과 다른 과목을 수업)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필자는 이런 보도를 접할 때마다 우리교육이 맞닥뜨렸다고 하는 ‘학생 수 감소’라는 위기, 그리고 ‘학교 통폐합’이라는 대책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 학생 수가 줄었으니까 학교 수를 그에 맞춰 줄여야 할까.

이에 따르면 학교는 유희교실 없이 계속 복적여야 한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이지 말고 교육에 투입되는 비용대비 수익을 높여야 한다. 때문에 학생회실, 매점, 동아리 전용실 등 학생을 위한 공간은 없다. 개별화된 수업이나 교사와 학생들과의 충분한 정서적 교감도 바라서는 안 된다.

맞춤형 교육을 하는 작지만 강한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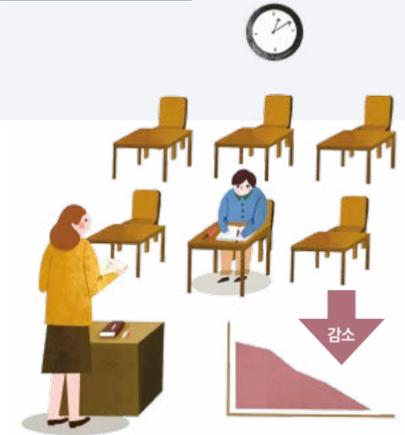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건 학생 수가 아니라 ‘행복한 학생의 수’이다. 학생 수 감소가 아니라 현재 학생들의 불행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학생 감소 현상을 경쟁력이나 효율성이나 하는 차가운 관념으로 분석하기보다, 학생들의 표정을 살폈으면 좋겠다.

한국은 자살하는 학생이 많은 나라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최근 발표한 ‘2018 청소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9~24세)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었다. 2016년 기준으로 교통사고로 죽은 청소년이 인구 10만 명당 3.8명인 반면 자살한 청소년은 7.8명이나 됐다.

청소년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자살률 보다 3배나 높다. 우울감과 절망감을 느꼈다는 청소년도 네 명 중 한 명꼴이었다. 학생 수 감소가 문제가 아니라 불행한 학생이 많다는 게 우리의 진짜 문제다.

학교 졸업 후 삶의 질은 또 어떠한가. 인공지능이나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어 추세다. 이런 마당에 실업에 구직에 눈물 흘리는 청년들이 되기 전에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학교가 밀거름이 되어주자. 맞춤형 교육을 하는 작지만 강한 학교가 되는 게 답이다.

학생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지금, 공교육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적기는 아닐까. 그리고 소규모 학교가 꼭 경쟁력이 부족할 거라고 예단하진 말자. 소규모 학교가 지역을 살린 사례가 차고 넘친다. 혁신학교의 아이디어도 소규모 학교 남한산초등학교에서 시작했다.



‘학생의 분포’를 고민해야 할 때

또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건 ‘학생의 분포’이다. 신도시 택지지구나 대도시의 초·중등학교들은 아직도 학급 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고, 1,000명에 육박하는 교직원과 학생들이 함께 지낸다. 학생 수가 급격하게 감소한 게 이 정도다. 일자리가 도시에 몰려있다 보니 도시의 학교만 복적이다. 결국 일자리 문제다. 도시를 떠나 귀농, 귀촌, 귀어를 하고 싶어도 지역에 자녀가 다닐 학교가 없다면 도시 인구만 또 늘어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인식해 귀농과 귀어에 이어 귀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돈만 준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일본도 30년 전 학생 수가 출자 적정학급 지침에 따라 학교를 통폐합했다가 지역이 더 빠르게 무너졌다. 현재는 학생이 1명이라도 있다면, 주민들이 반대하면 폐교 대신 휴교한다. 지역이 존속하기 위해 학교가 최후의 보루가 된다는 점을 인식한 덕분이다. 일본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 삼으면 될 것을, 우리는 읍면 120명, 도시 240명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체학교 40% 정도를 줄여야 한다.

교육부는 권고일 뿐 지역교육청이 결정한다고 하지만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60~100억 원, 그리고 기숙사, 통학버스를 지원한다. 예산을 받는 지방 교육청 입장에선 마치 강제 규정 같은 기분이 들 것이다. 학생 수가 줄어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학교를 없애지 말자. 눈앞의 작은 이익일 뿐이다.

혁신학교 아이디어도 소규모 학교에서 출발

이렇게 보면 학생 수 감소는 문제가 아니요, 학교 통폐합도 대책이 아닌 셈이다. ‘아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같은 구호를 외치면서 아이들을 왜 잘 교육하려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우리의 아이들은 연금을 위한, 국가 발전의 수단이다. 학생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지금, 공교육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적기는 아닐까. 그리고 소규모 학교가 꼭 경쟁력이 부족할 거라고 예단하진 말자. 소규모 학교가 지역을 살린 사례가 차고 넘친다. 혁신학교의 아이디어도 소규모 학교 남한산초등학교에서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함께 소리 내어 읽어 보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㉞

여름방학 알차게 보내기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언제가 가장 좋은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이랑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답해주면 좋으련만, 아이들이 입을 모아 했던 말은 “방학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이들로서는 아무리 즐거워도 학교에서 즐거운 것보다는 집에서 노는 것이 더 좋은 것이죠.

방학하는 날을 그렇게나 기다리는 아이들이니, 방학숙제를 내주면 아이들 표정이 금방 새초롬해집니다. 방학이니까 학교를 잊고 지내고 싶은데 방학숙제를 하려면 학교가 다시 생각나겠지요.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요. 그래서 인지 요즘은 아예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방학 숙제를 없앤 지역도 더러 있습니다.

방학숙제 대신 즐겁고 신나게 여름방학을 보내고 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소개합니다. 교실에서 학기 말에 해봐도 좋고, 아이들이 집에서 심심할 때 해봐도 좋은 아이디어들입니다.

신나는 여름방학을 보낼 아이디어 5가지

① 포도껍질로

천연 염색하기



가정에서 잘 쓰지 않는 손수건이나 티셔츠를 가져옵니다. 오래돼서 누렇게 바래진 흰 티면 더 좋습니다. 아이들이 먹고 남긴 포도껍질을 체에 문질러서 짫이깁니다. 포도껍질에서 나온 물에 가져온 티셔츠를 주물러 빨아줍니다. 이어서 백반을 열게 희석시킨 물(물1L+백반1~3g)에 한 번 더 빨아줍니다. 백반을 희석시킨 물을 맨손으로 만지면 손이 아리고, 건강에도 좋지 않으니 고무장갑을 끼고 하세요. 깨끗한 물에 여러 번 빨아서 햇볕에 잘 널어서 말립니다. 물이 골고루 들어도 예쁘지만 천연염색은 물이 군데군데만 들어도 예쁘답니다. 먹고 남긴 포도껍질이나 안 입는 오래된 티셔츠도 귀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걸 배울 수 있지요.

② 선플 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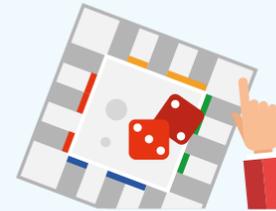
캠페인 하기



집에서 컴퓨터로 게임만 하면서 무료한 여름방학을 보낼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학교 홈페이지나 학급 카페 게시판에 댓글을 남겨보게 하세요. 이때 댓글은 반드시 실명으로 쓰게 하고 긍정적이고 모두가 읽어서 행복하고 기분 좋은 글이어야 한다는 것을 꼭 지도해주세요. 내가 쓰는 짧은 글 한 마디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응원이 된다는 것을 알면 인터넷에 함부로 악플을 다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③ 보드게임 만들기



어떤 학년 아이들이든지 상관없이 좋아하는 게 보드게임입니다. 교실에서 보드게임을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보드게임판을 직접 구매하시는 선생님도 많은데요. 그보다는 학생들이 배운 내용으로 직접 보드게임을 만들어 보게 하세요. 저는 교실에서 부루마블 게임처럼 세계 여러 나라 여행하기 게임을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서 가지고 놀게 했답니다. 말판과 게임설명서까지 모두 만드는 데 꼬박 4시간 넘게 걸리지만 만들고 나면 학생들이 몹시 뿌듯해하고 즐겁게 갖고 놀니다. 여름방학 때 가정에서 보드게임을 만들어오게 하면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할 수 있습니다.

④ 유기동물

보호 팔찌 만들기



애완동물은 어린이들에게 특히 사랑받는 동물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나 사랑스럽고 예쁜 애완동물을 유기하는 어른이 무척 많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두꺼운 털실을 꼬아서 팔찌를 만들어보게 하세요. 머리를 뚫아주듯이 실을 세 갈래로 땀은 다음 끝을 묶어주면 간단하게 팔찌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유기동물을 보호하자는 의미를 담아서 만든 팔찌를 서로에게 선물하게 하면 유기동물 보호 캠페인용 팔찌가 됩니다.

⑤ 탁상달력으로

'꿈 칠판' 만들기



아크릴 물감은 수채화 물감처럼 물에 타서 쓸 수 있으면서도 금방 말라서 학생들이 다루기에 편리합니다. 녹색, 검은색, 파란색 등 짙은 색으로 물감을 여러 개 준비합니다. 집에서 가져온 탁상달력 가장 겉면에 아크릴 물감을 여러 번 칠해줍니다. 몇 번이고 거듭해서 칠해줘야 진짜 칠판처럼 두껍고 진한 판이 됩니다. 아크릴 물감은 금방 마르기 때문에 한두 시간만 지나도 튼튼하고 예쁜 미니칠판이 완성됩니다. 완성된 미니칠판에 분필로 그림도 그려보고 학생들 꿈을 적어보게 하면 훌륭한 꿈 칠판이 된답니다. 여름방학에도 꿈을 꾸준히 생각할 수 있겠지요. ㉞

말 속에 자살을 암시하는 영준이

영준은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다. 담임선생님은 축이 있는 분인데, 어느 날 아침 영준이가 이상하다면서 상담실에 데리고 오셨다. 상담선생님이 ‘어쩐지 이상하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니 ‘아……. 그냥 어쩐지’ 하셨다. 상담선생님이 만나보니 영준은 말투가 거칠고 무례했다. 꼭 참으면서 듣고 있으려니까 영준이가 ‘전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죽고 싶어요.’ 하기에 ‘영준아. 그런 생각 하지 마. 게다가 너는 천국과 지옥을 믿는 가톨릭 신자잖아.’ 하자 돌연 웃으면서 ‘선생님은 그런 걸 믿으세요? 전 안 믿어요. 슈뢰딩거가 모든 물건은 분자가 썩어서 생긴 것일 뿐이라고 했어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지옥 안 가요! 아니, 지옥 없어요!’ 하고 소리쳤다. 상담선생님은 영준이가 죽을 생각을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움찔했다.

영준 진단

상담선생님, 담임선생님, 그리고 영준 어머니가 급히 모였다. 엄마가 ‘별일은 없었어요. 3월에 본인이 원하던 동아리에 오디션을 봤다가 떨어졌다면서 기분이 안 좋았던 것하고, 5월에 중간고사 보고 와서 시험을 망쳤다고 화낸 것 정도요. 그리고 보니 요즘 말끝마다

다 때려치운다는 말을 자주 하긴 했어요.’ 하셨다. 담임선생님이 ‘영준은 최근 2주 동안 갑분싸(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짐) 해졌어요. 어둠의 냄새를 풍기고 다닌다고나 할까? 친구 대하는 것도 예전 같지 않네요.’ 하셨다. 상담선생님이 “별일 아닌데도 욱하니 스트레스가 심한 것 같아요. 해결이 어려우면 참기라도 하는데, 못 참으면 죽겠다 하죠. 그런다고 다 죽진 않고요. ‘살아도 의미 없고, 죽는대도 두렵지 않아.’ 하면서 자살에 대한 심정적인 빗장이 풀리면 드디어 구체적인 행동을 합니다. 애는 세 번째 단계예요. 무슨 단서가 있나 확인해 봅시다.” 했다. 어머니가 집으로 가서 영준의 방을 살폈고, 담임선생님이 SNS, 글짓기 과제, 친구들과 나눴던 말을 확인했다. 영준의 SNS에는 ‘내 존재의 의미를 알 수 없다.’ 같은 글귀가 많았고, 서랍에서는 특별한 날이 아닌데도 어머니와 형에게 주기 위한 선물과 감사의 편지가 발견되었다.



영준 지도

그날 오후 상담선생님은 영준과 다시 마주 앉았다. 학교에 구성된 자살 방지 위원회에 보고했고, 그 결과 자체적으로 처리할지 상급 상담 기관이나 외부 정신과에 보낼 것인지 결정하는 순서를 밟자는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영준은 자기 얘기를 하는 대신 허무 철학에 대해서 얘기했다. 슈뢰딩거의 양자역학과 불교의 윤회론과 반기독교적 무신론을 나름대로 섞어서 사람의 목숨은 생각만큼 대단한 게 아니고 죽으면 분자상태로 돌아갈 뿐이라고 했다.

오랜 생각 끝에 자살을 결정한 사람은 이직을 결정하고 퇴직 서류를 제출한 사람처럼 가야 할 다른 길(?)이 생긴데다 이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문지방 이상의 자극(above threshold stimulus, 남들이 알아챌 정도의 자극)’ 단서를 노출하지 않는다. 설령 주변 사람이 눈치 채고 캐묻는다 해도 마음을 열지 않는다. 자살이라는 큰 결정(?)을 한 사람의 마음의 문지방을 넘으려면 직접적으로 무례(?)하게 자살 얘기를 꺼내기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주제와 가까운 곳에서 따뜻하게 다가서는 게 좋다. 그래서 상담선생님은 영준의 토론 신청(?)에 반응하는 대신, 온 마음을 다해 진지하게 듣다가 따뜻하게 말했다.

“영준아, 정말 힘들고 화나는 일이 있었나 봐. 하나만 말해 줄래?”

그 말에 영준은 3월부터 꼬이기 시작한 일들에 대해서 소리치고 욱하면서 쏟아놓기 시작했다. 3월에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로봇 반에 지원했지만 자신만 떨어졌고, 중간고사를 쳤지만 영망이었다고. 중학교에서 자신과 어깨를 나란히 겨루던 친구들은 고등학교에 와서 첫 시험에서 다들 전교 등수가 나왔는데 자신만 너무 낮아서 공개할 수도 없을 지경이라고. 이젠 존재감이 바닥인데 만회할 방법이 없다고.

상담선생님은 위로하거나 충고하는 대신 두 번째 질문을 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해본 방법이 있니?” “네. 부모님께 전학 가겠다고 했어요. 00시에 대안학교가 있거든요. 제가 좀 알아봤어요. 거기 가면 기를 펴고 살 수 있어요. 내신도 올릴 수 있고요. 그런데 암만 말해도 아빠가 허락을 안 하세요. 나는 하루도 못 견디는데 아빠는 당장 이사를 어떻게 하나고요. 그래서 형 책상과 엄마 화장대에 편지를 올려놓고 밤에 창문에서 뛰어내릴 거예요.”

자살에는 보복성과 해결성이 있는데 이 경우 둘 다이며, 철학적으로 길을 열었고 행동으로도 구체화되었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다. 하지만 원인이 밝혀졌으니 다행이다. 영준은 곧 전학을 갔고, 얼마 후 새 학교에서 행복하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역시 **자살은 예방이 최선이다**. 자살을 결심한 청소년은 자기 마음속에서 주변 사람들을 다 불신임 겸 하고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기대가 없고, 주변 사람들도 그를 넘겨보기 때문에 사전에 단서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이 경우 **나태주 시인의 말처럼 ‘오래 보아야’ 알 수 있는 미세한 단서를 알아챌 담임선생님이 참 대단하고 고마운 분이 아닐까?** ㉞

허무주의 시대, 니체를 다시 보다

현대는 니체 철학의 부활 시대라고 해도 될 만큼 그의 철학이 주목을 받고 있다. 철학이 시대정신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면, 이런 흐름 역시 시대정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시대가 니체 철학을 찾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시대가 허무주의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 아닐까? 사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삶의 희망을 상실한 채 생존의 법칙에 묶여 하루하루를 그저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인터넷 문화의 발전과 글로벌 자본의 확산으로 오늘의 우리는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저마다 자신이 왜 사는지 돌아볼 겨를도 없이 그저 주어지는 업무에 떠밀려 수동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심지어는 이런 삶에조차 참여도 못한 채 무력하게 바깥으로 밀려나는 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는 삶의 희망을 포기한 채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지금 우리 사회는 피로사회를 넘어 포기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 사회에는 허무의 그림자가 점점 더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자유정신을 추구하는 ‘위버멘쉬의 길’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상황을 넘어서기 위한 다각도의 모색도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날 주목을 받고 있는 니체 철학을 통한 새로운 모색은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허무에 직면해 있는 오늘의 현대인은 자신의 고달픈 삶에서 새로운 희망을 건져내고자 니체의 철학에 노크하고 있다. 익히 알다시피 니체는 신이 죽은 허무주의 시대를 넘어가기 위해 ‘수동적 허무주의’의 길이 아닌 ‘능동적 허무주의’의 길을 추구한다. 그에 의하면 전자의 허무주의에는 삶의 가치나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을 포기한 채 그저 현실의 생존법칙에 순응한 채 안주하며 살아가는 태도가 담겨 있다. 그런가 하면 후자의 허무주의에는 이런 현실에 예속되지 않고 매 순간 끝없이 자기창조를 감행하는 태도가 자리하고 있다. 그는 이 후자의 입장에 기초하여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지금 이 ‘순간’을 긍정하는 인간의 길, 그래서 ‘힘에의 의지’를 표현하는 인간의 길을 추구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 인간은 우리를 노예로 길들이는 정해진 답이나 규율을 가로질러 자신의 자유정신을 추구하는 위버멘쉬(Übermensch)의 길로 나아간다. 이 위버멘쉬는 하나의 절대적 지평에 갇혀 있기



현대인은 이성이 설정한 목표에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
이제 이 목표를 내려놓고 몸이 원하는 생명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바로 거기에 진정한 놀이가 존재한다.

보다는 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관점주의로 향해 있다. 따라서 이 위버멘쉬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의무를 이행하는 낙타의 길에만 머물러 있거나, 기존의 모든 규율, 관습 등을 격파하고 스스로에게 명령하며 자율성을 추구하는 사자의 길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이는 외부로부터 자기에게 주어지는 의무와 이를 극복하도록 스스로에게 강제하는 명령이라는 틀을 넘어 놀이하는 순진무구한 아이의 길로 향해 있다. 이 아이는 선악이나 옳고 그름이라는 이분법에 갇힌 인간을 넘어서려고 한다. 놀이하는 아이는 대지에서 고통을 짊어진 채 고행을 감내하는 복종의 길이나, 대지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소유하고 지배하는 정복의 길을 넘어 대지에서 대지와 함께 춤추며 노는 자이다.

허무적 삶을 넘어 새로운 자기놀이로

사실 이 대지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생로병사라는 어쩔 수 없는 반복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리는 이 과정이 없기를 희망할 수 없다. 다만 우리는 그 과정에 참여하여 그 과정을 긍정하며 놀이할 수 있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인류의 역사는 놀이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 신이라는 이름 아래서 강한 율법과 규율이 작동했던 시대에는 놀이는 옳음의 가치를 이탈하는 타락으로 규정되기 십상이었고, 돈이라는 이름 아래서 강한 경쟁과 생산이 지배하는 오늘의 사회에서는 놀이는 이윤 창출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무용한 것으로 규정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놀이는 몸의 감각을 활성화해주며, 아울러 우리로 하여금 무한한 상상력을 통해 억압된 무의식을 풀어내는 길로 인도한다. 그러므로 이 놀이는 성취 목표에 속박된 오늘의 우리 삶으로부터 삶의 무게를 덜어내 주며, 저마다 지금을 긍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윤택유를 제공한다. 또한 이 놀이는 늘 새롭게 자기를 창조할 수 있는 생명력을 불어넣어 준다. 현대인은 이성이 설정한 목표에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 이제 이 목표를 내려놓고 몸이 원하는 생명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바로 거기에 진정한 놀이가 존재한다. 우리는 이 놀이를 통해 고달픈 지금을 아름답고 즐거운 지금으로 승화시켜내야 한다. 허무를 벗어나는 삶의 즐거움은 늘 새롭게 지금을 맞이하고 지금을 살려내는, 그래서 진정으로 자기를 새롭게 길러내는 예술적 놀이에 있다. 바로 여기에 니체가 살아 숨 쉬고 있다. ㉠

댓잎 소리가 손짓하는 길목, 담양

죽녹원, 대숲과 담양의 정자를 한눈에

흰소로 가득 찬 귓속을 비워내고 싶었다. 티끌 한 점 없는 맑은 물 같은 소리로 귀를 씻어내고 싶었다. 투명한 소리를 찾아 들어가 보면 굳어가는 이 귀도 물렁하게 만들 수 있을까. 바깥귀를 뒤덮은 소리를 벗기려 쪽 뺨은 대가 푸른 소리를 울려내고 있는 곳, 죽녹원을 찾아 들어간다.

2003년 조성된 죽녹원은 대숲과 담양의 정자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관광 명소다. 대나무 그늘을 지붕삼아 죽림욕을 즐길 수 있는 산책로로 들어선다. 길은 운수대통길, 죽마고우길, 사랑이 변치 않는 길, 철학자의 길, 선비의 길 등 8가지 주제를 따라 이어진다. 어떤 행로를 택하느냐에 따라 풍경도 달라질 터, 입구를 지나 죽마고우길로 방향을 잡는다. 길게 늘어선 대나무가 만들어낸 그늘이 이마의 땀을 식혀준다.

대나무를 지나온 바람이 밧그레 달아오른 볼을 매만진다. 숨을 고르며 걷다 보니 몸은 어느새 식어있다. 떨어냄이란 시간을 들이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깨우침이 나를 지나간다.

운수대통길 끝에 이이남 아트센터가 있다. 오랜 동양화를 미디어 아트로 재해석해내는 것으로 유명한 작가 이이남의 이야기가 발을 이끈다. 어둠을 수놓은 빛의 향연. 김홍도의 묵죽도에서 박연의 폭포를 거쳐 아사천에 핀 매화까지. 원화의 여백을 배경으로 미디어가 만들어낸 움직임이 묘한 여운을 전한다. 21세기 동양화를 눈에 담아서일까. 미술관을 나오니 대나무가 새삼 달라 보인다. 보는 눈에 따라 사물도 다르게 마음에 맺히나 보다. 사색의 길을 지나 이른 곳은 철학자의 길이다. 이끼 낀 돌담을 따라 이어지는 독일 하이델베르크의 철학자 길과 강을 가운데 둔 일본 교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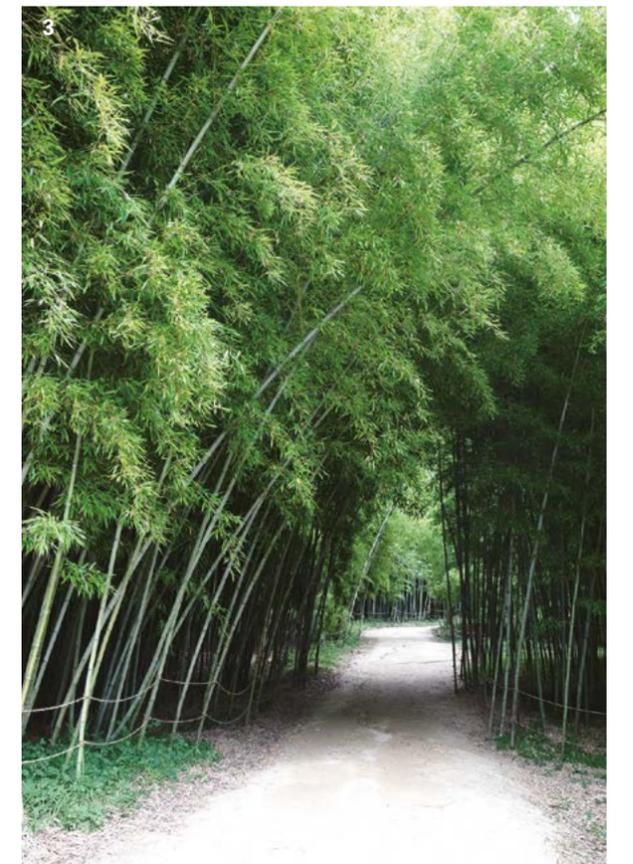
댓잎 소리가 귀를 맴돈다. 사각사각. 소슬소슬. 바람의 속삭임인지 대나무의 노래인지 그도 아니면 어여 오라는 손짓인지. 간질거리는 귀를 문지르며 차에 오른다. 여름 이야기를 찾아 피리소리 같은 대나무 곡조를 따라 달린다. '신록예찬'에서 이양하 작가가 그랬던가. 초록(草綠)에 한하여 나에게서 청탁(淸濁)이 없다고. 가장 연한 것에서 가장 짙은 것에 이르기까지 나는 모든 초록을 사랑한다고. 푸르름을 끼고 달리기만 해도 좋은 계절, 7월의 행선지는 담양이다.

철학자 길이 겹쳐진다. 걷는 행위는 철학과 닿아있다. 걷기와 성찰은 사고하는 인간의 숙명일지도 모른다. 사유하는 인간은,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인간은 고독할지언정 외롭지는 않으리라.

갈림길에서 시가문화촌으로 들어선다. 가사문학으로 국문학사를 풍성하게 한 담양의 면면을 모아둔 이곳에서는 면양정, 식영정, 소쇄원, 광풍각, 송강정, 환벽당 등을 볼 수 있다. 길을 가다 보면 면양 송순, 하서 김인후, 송강 정철, 제봉 고경명 등 조선 중기 문인들의 작품을 현대의 서예작가들의 손을 빌어 빚어 놓은 시비도 만나게 된다. '꿰어보면 땅이요, 우러러보면 하늘이라, 그 가운데 정자 짓고 흥취 호연하다'던 송순의 시 구절처럼 하늘과 땅을 올려다보기도 하고 내려다보기도 하며 자신을 살펴 가는 것이 우리네 삶이 아닐까.

죽녹원 근방 국수촌에서 허기를 달랜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찾은 곳은 관방제림이다. 관방제림은 관방천 제방에 조성된 노거수 숲이다. 빼곡하게 자리 잡은 200-300년 수령의 고목(古木)들이 멋스러운 풍치림을 이루고 있다. 짙은 녹음과 그림자 때문인지 여름인데도 여름 같지 않은 청량감이 감돈다. 푸조나무, 팽나무, 개서어나무. 줄줄이 늘어선 나무가 들려주는 하늘과 땅 그리고 바람의 사연에 막혀 있던 귀가 뚫리는 것 같다. 나무가 관통해 온 시간과 뜨거운 해를 가리고 선 나뭇잎과 나무그늘 속을 걷는 사람들. 자박자박한 발소리가 기분 좋게 귀를 울린다.

1.2.3. 죽녹원





4. 5. 6. 가시문학관
7. 대나무박물관
8. 9. 소쇄원
10. 11. 삼지천 마을

다음 행선지는 메타세쿼이아 길이다. 아름다운 길 일 위에 선정되었다는 어느 드라마의 배경이었다는 출시자로 각광받고 있다는 수식어는 메타세쿼이아 길에 들어서는 순간, 까마득히 지워진다. 여기는 초록비가 하염없이 쏟아져 내리는 동화 속이다. 지금 나는 절정의 녹음이 뿔어진 푸름이 눈과 귀, 코와 입을 간질거리게 하는 초록 행성을 거닐고 있다. 메타세쿼이아 숲의 공기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해와 녹음, 나무와 길의 어우러짐이 준 감동을 가슴에 새긴다. 길은 굴곡진 데가 없고 하늘은 청명하고 나무는 곧게 뻗어 있다. 드문드문 놓여 숲의 운치를 더해 주는 벤치와 오두막과 조각상들. 사각사각, 소곤소곤, 속살속살. 귀를 간질이는 이 소리는 푸른 잎을 빌어 숲이 전해온 응원가일지도 모른다. 그래, 이 길을 걸으며 나를 그리고 나와 인연이 닿았던 누군가를 반추해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한 걸음을 더 내딛고 있는 것일 것이다.

가사문학의 정수를 느끼다

청량한 공기로 귀도 씻었으니 숨을 골라야겠다. 가사문학관으로 간다. 가사는 고려 말에 생겨나 조선 사대부가 문학 양식으로 확립시킨, 음보를 가진 율문(律文) 작품이다. 사대부 이야기를 적은 사대부 가사에서부터 부녀자의 목소리가 들어 있는 규방가사, 서민들의 이야기를 풀어 놓은 서민가사까지, 작가층이 다양한 가사는 어느 문학 장르보다 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쟁에 환멸을 느끼고 한양을 떠나

온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담양은 가사문학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이서의 낙지가, 송순의 면앙정가, 정철의 성산별곡 등 18수의 가사가 이곳에서 태어났다.

공들여 장식한 정원 같은 경내를 지나 문학관으로 들어선다. 면앙정 현판과 송강서원 현판, 면앙 송순과 송강 정철 등의 작품이 있는 제1전시실을 지나온다. 제2전시실에 들어가니 소쇄원 그림과 정극인의 상춘곡, 허난설헌의 규원가 등이 있다. 정철의 성산별곡 한 구절을 곱씹으며 1층으로 내려간다. 제3전시실에서 석천 임억령, 하서 김인후, 제봉 고경명 등의 작품을 만난다. 오래전 교과서에서 읽었던 작품들의 원본을 본 데서 온 먹먹함과 붓이 뿔어진 글이 건넨 묵직한 울림을 담고 문학관을 나온다. 송강 정철의 성산별곡 한 구절을 형상화했다는 피리 부는 목동 동상이 뒤늦게 눈을 지나간다. 동상을 가만 보고 있자니 수백 년 전 어느 목동이 불었다던 피리소리가 귀를 두드리고 들어오는 것도 같다.

조선 중기 정원의 백미, 소쇄원

다음 여행지는 소쇄원이다. 소쇄원은 소쇄옹 양산보(1503~1557)가 스승 조광조의 유배에 낙심해 담양으로 내려와 만든 정원이다. '깨끗하고 시원하다'는 뜻을 가진 소쇄원은 조선 중기 정원의 백미로 꼽힌다. 대나무 길을 지나 소쇄정에 닿는다. 소쇄원의 중심이라는 너럭바위를 거쳐 제월당으로 향한다. 황토와 돌, 기와로 만들어진 담장 가운데 '소쇄원 주인 양산보의 소박한 보금자리'라는 뜻의 우암 송시열

글이 남아있다. '비개인 하늘의 상쾌한 달'을 뜻하는, 양산보의 서재 제월당. 지붕 아래 편액에 양산보를 찾아온 벗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있다. 수많은 이들이 백리 길도 마다않고 달려오게 한 마음에는 벗을 향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이다. 제월당 아래에 '비개인 뒤 해가 뜨며 부는 청량한 바람'이라는 의미의 광풍각이 있다. 손님을 맞기 위한 사랑방이다. 마루에 등을 기대앉아 본다. 대숲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졸졸거리는 물소리와 나지막한 담장이 한 점의 그림이 되어 나를 지나간다. 귀를 막고 있던 뭔가가 '툭'하고 떨어져 나간 듯한 짜릿함이 등을 쓸고 간다. 이런 순간에는 청명해진다는 말이, 비워졌다는 말이 더없이 탁월한 표현이리라.

느림을 만끽하는 슬로우 시티, 삼지천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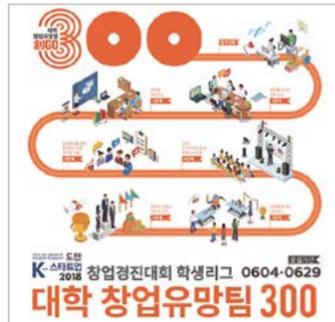
해가 넘어가고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하는 시간, 느림을 문두에 내건 '슬로우 시티', 삼지천 마을로 들어간다. '슬로우 시티'는 현지 재료로 만든 제철 음식을 먹자는 '슬로우 푸드'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과 느림과 여유를 슬로전으로 내건 '슬로우 시티' 운동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세계 각지로 전파되었다. 아시아에서는 전남 완도군의 '청산도', 목포시 신안군의 '증도', 담양군의 '삼지천 마을', 장흥군의 '장평, 유치지역'이 슬로우 시티로 선정되어 있다. 아름다리 고목과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나지막한 담, 담장을 뒤덮은 덩굴과 예스러운 가옥 마당의 장독대. 마을 안으로 들어갈수록 시계초침은 느려지고 발은 가벼워진다. 숙소에 들어가기 전, 돌담에 적힌 나옹선사의 시를 속으로 읊조려 본다. '청산은 날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날보고 티 없이 살라하네,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청산은 날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날보고 티 없이 살라하네, 성냄도 벗어놓고 탐욕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어둠이 내려앉는다. 공명하는 시구(詩句)가 가슴을 울린다. 새소리가 들려온다. 내일은 정처 없이 담양을 거닐어 봐야겠다. 면앙정도 좋고 환벽당도 좋고 담빛 예술창고도 좋고 미암 박물관도 좋다. 발 닿는 대로 다니며 오늘 비워낸 말간 귀에 세월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담아봐야겠다. ㉓



NEWS BRIEFING

happyedu.moe.go.kr 2018.07

대학 창업 유망팀 300 경진대회 실시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2018 대학 창업유망팀 300 경진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대학 창업유망팀 300 경진대회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화 성공모델을 발굴하기 위하여 '16년부터 개최된 행사로, 올해에는 대학생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업뿐 아니라 대학원생의 고급 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해 두 가지 트랙으로 구분하여 총 300팀을 선발하였다. 이번 창업유망팀 300 경진대회를 통해 최종 선발된 300팀은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유관 부처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맞춤형 창업지원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대회가 세계적인 창업팀 발굴과 창업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어,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졸 취업 '좋은 일자리 발굴, 처우개선이 관건'



교육부는 6월 8일 서울로봇고등학교에서 '선취업-후학습 활성화를 위한 직업계고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정적인 취업기반 마련을 위해 현장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간담회 참석자들은 직업계고가 심각한 청년취업난 속에서도 기업 맞춤형교육 및 취업연계 지원 등을 통해 개인의 원활한 사회참여와 국가 경쟁력을 이끌고 있음을 공감하였다. 교육부는 직업교육은 급변하는 직업세계에 각 개인이 유연하게 적응하는 능력을 키우는 핵심수단으로,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사체-산업계 모두가 협력하여 해법을 찾고, 고졸 인력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중등단계 직업교육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애학생 맞춤 일자리 늘린다



교육부는 7월 2일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 및 취업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지역사회 일자리, 대학 내 일자리, 재정지원 일자리 등 장애학생 2,115명에게 맞춤 일자리를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 고용 확대 기반을 구축하고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도 힘쓸 계획이다.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통합서비스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가 원스톱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대학 및 지역사회 사업체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자유학년제, 혁신학교와 만나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희망하는 중학교에서 1학년 두 학기 동안 자유학기를 실시하는 자유학년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6월 4일에는 혁신학교이면서 자유학년제를 실시하고 있는 충북 음성군 소재 삼성중학교 1학년 교실을 장관과 교육부 기자단이 방문하여, 학생 중심 프로젝트를 구현하는 수업에 참여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우리 마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행복 공간의 필요성과 제안 방법을 주제로 모둠별 토론이 이루어진 1학년 사회와 프로젝트 수업을 참관하고, 이어진 현장간담회에서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관계자와 함께 수업을 참관한 소감을 나누고, 자유학년제를 통한 교실 수업 혁신의 방향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선생님과 학교가 빛낸 자유학기 수업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제3회 자유학기제 실천사례 연구대회 입상작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대회는 2017년에 전국 중학교에서 운영된 자유학기의 우수한 수업 및 학교 실천 사례를 발굴·확산함으로써, 내실 있는 자유학기 운영을 지원하고자 개최되었다.

이번 연구대회에서 총 153편이 출품되었으며, 심사를 통해 총 27편의 입상작을 선정하였는데, 입상작은 전국의 교원들에게 공유할 계획이며, 입상 교원들은 여름방학 중에 이루어질 예정인 '자유학기제 수업콘서트'에서 직접 자신의 수업을 안내하거나 시연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즐거운 배움을 통해 자기 주도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키우는 지름길임을 강조하면서, 자유학기를 중심으로 한 학교 현장의 수업 혁신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업계고 노동인권 산업안전보건 교육 강화한다



교육부는 직업계고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과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우선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성공적인 직업생활' 과목을 정규 교육과정에 도입하고, 전체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온라인교육을 필수과정으로 운영한다. 이와 더불어 직업계고 교사들의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인권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1박 2일 집합연수를 대폭 확대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교육 강화를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 진출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과 노동인권에 대한 소양을 충분히 갖추고, 학교의 예비 직업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과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력이 제고되도록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교사 연수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중·고생 해외 친구와 함께 교육용 앱 개발



교육부와 APEC국제교육협력원이 주최해 온 'e-ICON 세계대회'가 올해는 대회 최초로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되었다. 2009년 이후로 여덟 번째 열리는 이번 대회는 6월 24일부터 7일간, 국내·외 학생들이 글로벌 팀을 이뤄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주제로 교육용 앱을 개발하였다. 특히 이번 대회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컴퓨팅 역량과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을 공감한 미국 하와이주 교육부가 공동 개최 국가로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다국적 팀을 이루어, 지난 2개월간 온라인 사전 활동(18.4~6.)을 수행하였고, 1주일간 하와이에서 합숙을 통한 본 활동을 진행하였다. 1등 팀에는 교육부 장관상을, 2등 팀과 3등 팀에게는 각각 하와이주 교육감상과 APEC국제교육협력원 이사장상을 시상하였다. 학생들이 개발하여 앱 스토어에 등록된 모바일 앱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국제컨퍼런스 등에 전시될 계획이다.

체육중점 고교 400명, 진로진학상담 받는다



교육부는 6월 23일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체육에 흥미와 관심을 가진 체육 중점학교 학생들을 위해 '2018 체육중점학교 진로교육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체육교사와 스포츠산업 관계자가 학생 체험 중심의 체육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교육기부 및 사회공헌 활동 형태로 참여 학생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체육! 미래를 품다'로, 학생들이 체육 및 스포츠를 매개로 미래의 진로를 탐색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자신의 직업을 디자인할 수 있게 하려는 데 의미를 두었다. 교육부는 이번 행사가 체육진로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자기 주도적 진로개척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체육중점학교 운영이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신뢰도 제고라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 선정 결과 발표



교육부는 2018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K-MOOC)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15년 10월 서비스를 개통한 K-MOOC는 질 높은 콘텐츠 및 양방향 학습관리를 제공하여 학습자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는 다양한 학습자에게 필요한 우수한 K-MOOC 강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대학 단위 공모방식에서 강좌 단위 공모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개별강좌와 묶음강좌로 구분하여 23개 강좌를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한 23개 강좌를 포함하여, K-MOOC에서는 올해 180여 개 강좌를 신규 개발하여 총 500여 개 강좌를 제공할 예정이다. 개별강좌는 7월부터 제작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제공할 예정이며, K-MOOC 강좌는 누리집(www.kmooc.kr)에서 회원가입 후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

6월호



명예기사의 까칠한 수다

고교학점제

오는 2022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고교학점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듣고, 누적된 학점이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인데요. 일부 고등학교는 올해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 지난 호 <교육 썰전>에서는 고교학점제 성공을 위한 과제들을 살펴봤습니다. 현장에서 바라본 고교학점제, 명예기자들이 콕! 콕! 짚어봅니다.

김민중
초등교사

고교학점제에 찬성하며 응원합니다. 잘못된 고교서열화가 일반화된 지금 고교의 특색과 동시에 학생중심적인 교육을 실현할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단지 새로운 대입의 편법이나 가진 자에게 유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무너져가는 일반고의 힘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지요.

백희
학부모

자사고와 특목고가 존재하는 한 내신의 절대평가는 어렵다고 봅니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지요. 선택 교과로 인해 소외될 과목 선생님의 처우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반고에서 물리나 경제과목은 인기가 낮는데, 과목이 열리더라도 1등급 받기 어려워 학생들의 선택에 망설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재일
학부모

학부모로서 자녀의 교육에 도움이 된다면 근본 취지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일부 인기 있거나 학점 따기 쉬운 과목에만 몰리게 되고, 사설학원처럼 교사와 학생 간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계약에 의해 운영되는 폐단도 걱정됩니다.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장점은 학생이 스스로 진로를 생각하며 수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고교 교육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요. 하지만 쉽게 학점을 취득하기 위한 과목의 선택이 우려되고 있어 대안이 필요하지요.

강병희
고교 교사

대학과 같이 과목을 열어놓고 학생들이 선택하게 하는데, 선택순 혹은 추천의 방식으로 과목을 듣는 학생 수를 조절해야 합니다. 상대평가가 시행되고 있어 학생 수가 많은 과목으로 학생이 편중되거나, 친구와 같은 학급에 배정받기 위해 과목을 선택하여 학생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절대평가 혹은 지금보다 넓은 의미의 상대평가 도입이 시급합니다.

양요생
초등교사

아직 진로도 정해지지 않았고 기초 지식도 부족한 상태에서 고교학점제를 하면 학문에 임하는 진지한 탐구 자세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박경은
학교 행정실장

지난호 독자 리뷰

판문점 선언과 평화 통일교육

통일이 정말 성큼 다가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 교육에서도 통일을 준비하며 학생들에게 시민역량과 통합역량, 통일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더 해야 하는지 잘 알려주었다. 학생들에게 민주적인 가치를 심층적으로 가르치고 시민으로서 북한학생과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문제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교사와 학교, 학부모와 지역 사회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모니터단 국윤나

디지털 신기술 접목한 실감형 수업디자인

과학 기술이 빠르게 발달함에 따라 교실의 모습도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 교과서, 스마트TV 등을 활용한 수업이 그 예이다. 이번 '디지털 신기술 접목한 실감형 수업디자인' 글에서는 평소에 교육학 이론에서만 보던 내용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느낌이 새로웠다. 디지털 교과서 활용 수업 시범학교가 성공적으로 운영된 만큼, 디지털 신기술이 많은 학교에 바람직한 효과를 불러일으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 모니터단 윤서현

Event

7월호 표지이야기 '상생'을 키워드로 톡톡 튀는 재미난 이행시를 지어주세요.

다음달 5일까지 '행복한 교육'(https://happyedu.moe.go.kr) 홈페이지 → 이벤트 참여에 남겨주시면, 당첨되신 분께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문의 02-2271-0992

지난호 당첨자

- 김영일 경북 영천시 큰골길
천아영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이훈석 경북 포항시 북구 양학로



행복한 교육 웹진에서 더 다양한 교육정보를 만나보세요.

https://happyedu.moe.go.kr

정확한 교육정책과 학교 현장의 생생한 소식들이 가득합니다.

'행복한 교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구독을 신청하시면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문의 02-2271-0992

발행일 2018년 7월 15일
발행처 교육부
발행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편집인 대변인 임창빈
기획총괄 홍보담당관 안순익
교육연구사 정용주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변인실 431호
TEL 044-203-6573

편집실

- 기자 이순이 한주희
사진 김경수 이대원
디자인 홍지화 홍수명
마케팅 류광민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가길 10 세정IT빌딩
304호 (주)전우용사촌
TEL 02-2271-0992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온라인 교육소통 누리집



교육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생생하게 들려주세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대한민국의 교육을 함께 만들겠습니다.
www.moe.go.kr/onedu.do

